

분노한 청년들 국가에 공정성을 묻다

공기업 '乙들의 전쟁'

글 쓰는 순서

- 1. 취업준비생들의 이유있는 분노
- 2.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니
- 3.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추진으로 불거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전선은 이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 상당수는 '노력과 보상'이라는 공정경쟁의 룰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 담론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관련기사 4·5면
불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7~2019년의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평균 195.6대 1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입사한 보안검색 용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의 처우를 받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소외·박탈감에 '#부러진 펜' 확산 "노력과 보상 기회의 공정' 절실" 게 될 것이라는 점이 많은 취업준비생의 감정을 건드렸다.
논란의 불길은 삽시간에 커졌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시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3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일 현재 34만1902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온라인에서는 '부러진 펜' 사진을 공유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SNS상 언급도 급증했다. 트위터에 따르

면 6월 한 달간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이었다. 트위터의 주된 사용자층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결과였다.
이투데이가 만난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인국공 사태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면 남들과 같은 절차를 밟고 들어가면 된다"(권혁재·27), "19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았으니 신입 채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동근·27), "취준생과 노력해서 입사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이주형·27) 등의 반응이다. "불만을 표출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훈계하듯 '공채만 공정하

냐고 발언하는 여당 의원을 보며 분노했다"는 이도 있었다.
이번 논란이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 대한 고민거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취업 경쟁 속에서 정치적으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청년층의 아픈 곳을 깨물었다는 것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외와 박탈감이 이번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방문해 지시를 내린 특정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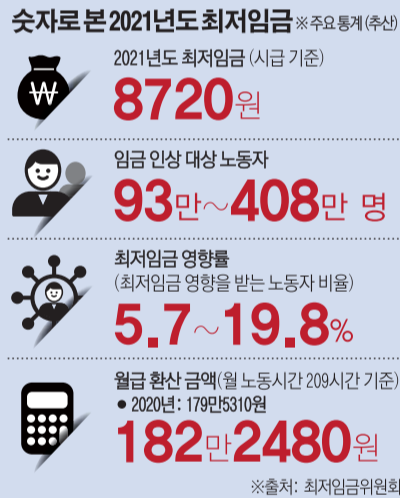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역대 최저 인상' 근로자 408만명 임금 혜택

월급으로 환산 댄 182만248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최대 408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올려 받게 된다. ▶관련기사 6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번에 의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 적용된다.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휴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노동자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월급으로 최소 182만248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文 "5년간 160兆 투입·일자리 190만개"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형·저탄소경제, 포용사회 강조 '디지털·그린' 10대 대표사업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제구조를 선도형·저탄소 경제로 바꾸고, 포용사회로 전환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픈면 쓸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68조 원,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부회장이 영상으로 연결돼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2025년에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수소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수소버스와 트럭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발표를 맡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네이버가 AI 기술로 분석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통해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LG화학, 울산 가소제 공장 문닫는다

설비 노후화로 36년 만에 가동 중단
LG화학의 울산 가소제 공장이 36년 만에 가동을 멈춘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및 안전성이 저하되자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공장의 가소제 생산라인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넣는 첨가제다.
LG화학의 울산공장은 1974년 '럭키 울산공장'으로 시작해 40년 가까이 가소제

를 생산해왔다. 2009년 LG화학에서 LG하우시스가 분사하면서 공장 주인은 LG하우시스가 됐다. 가소제 생산라인은 그대로 유지됐다.
LG화학이 울산 공장에서 가소제 생산을 멈추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설비 노후화다. LG화학은 노후화된 설비가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울산 공장의 설비를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 가동을 멈추고 현재 가소제를 생산하고 있는 나주 공장에서 생산을 일원화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eugene@

KFF 제7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포스트 코로나' K-재테크 쇼
오늘 오전 9시 | 이투데이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etodaycokr>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블룸

〈삼성전자 부회장〉

10년 후 내다본 이재용 “6G 글로벌 표준 세운다”



삼성전자 '6G 백서'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10년 뒤 차세대 통신 기술 비전을 제시하며 6G 미래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IM(IT·모바일) 부문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5G 이후의 6G 이동통신 등 첨단 선행기술 개발을 점검한 지 1년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지금에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의 성과를 수성(守城)하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며 미래 투자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관련



첨단 선행기술 점검 1년 만에 '통신 비전' 제시 확장현실·테라헤르츠 주파수 등 2028년 상용화 미래 위한 투자... 기술개발 생태계 주도 주문

백서(사진)를 14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The Next Hyper-Connected Experience)'을 제공한다는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했다.

6G 시대에는 △초실감 확장 현실(Truly Immersive XR)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High-Fidelity Mobile Hologram)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 등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 △인공지능(AI) 활용 통신 기술 확대 △개방형 협업을 통한 통신망 개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6G 시대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6G에서는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 성능 개선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6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후보 기술로 테라헤르츠(THz)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 △고주파 대역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안테나 기술 △이중화(Duplex) 혁신 기술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 위성 활용 등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 혁신 기술 △주파수 활용 효율을 위한 주파수 공유 기술 △AI 통신 기술 등을 꼽았다.

6G는 내년부터 개념 논의를 시작으로 표준화가 착수되고, 이르면 2028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 2030년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인 차세대 통신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직접 챙겨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사장단과 전략회의를 하면서 5G 이후의 6G 이동통신 등에 대해 “경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G 경쟁력 강화와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성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현재 5G 상용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동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6G 준비가 절대 이르지 않다”며 “6G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그룹 회장〉

‘본업 경쟁력’ 강조한 신동빈 “사업전략 전면 재검토”

롯데그룹 2020 하반기 사장단 회의

“내년 말까지 ‘위드 코로나’... 내부 성찰 통한 위기 극복해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축이 ‘뉴노멀’이 된 데 따라 사업 전략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새해 신년사와 첫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에서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던 신 회장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사업보다 ‘본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는 14일 2020 하반기 롯데 VCM을 열면서 처음으로 웨비나(Webinar·웹 세미나) 형태로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사업 전략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신 회장은 “애프터 코로나가 곧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WC:With Corona)가 내년 말까

지는 계속될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70~80%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70% 경제’가 뉴노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노멀이 된 ‘70% 경제’에서 그간의 사업 전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업무상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CEO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1998년 IMF, 2008년 리먼 쇼크는 1~2년 잘 견디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무역, 세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해외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다른 접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회장은 “생산 최적화를 위해 많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갔지만, 지금은 신뢰성 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는 공급망(Supply Chain) 재구축이 힘을 받고 있고 투자도 리쇼어링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아직 다양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 간 시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2년에 한 번씩 방문해왔던 해외 자회사의 업무 현황을 이제는 언제라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최근의 화상회의 경험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또 최근 유통 매장 등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보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보였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본

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5월 초 귀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주말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롯데 사업장들을 방문하고 있다.

신 회장은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이루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사업의 경쟁력이 어떠한지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단기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대표이사들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19세기 영국의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말한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에 대비하라’를 인용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도 최선을 기대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2~3년 계속되겠지만, 이 기간을 우리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고객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이 봉투는 바다거북을 사랑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바다 생물들에게 특히 위협적인 플라스틱 공해를 줄이기 위해 땅속에서 6개월 이내에 스스로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 봉투를 사용합니다.

Green Friends

정의선 “전기차 23종 100만대 판매…점유율 10% 목표”

‘현대차’ 정의선·‘네이버’ 한성숙, 대국민 랜선보고

鄭 부회장 “5년 안에 친환경車로 세계시장 선도” 선언
韓 대표 “20년 축적 빅데이터 공개, 4차산업혁명 기여”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참여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구상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정 수석부회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 2028년까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경기 고양 모터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영상 연결 방식으로 전기차 3종을 배경으로 등장해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현대차의 비전을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모터스튜디오에 배치된 차세대 전기차를 소개한 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 달릴 수 있다”며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고 100만 대 판매, 시장점유율은 10% 이상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해서는 “3~4년 안에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박이나 열차, 도심형 항공기, 빌딩, 발전

소 등 생활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도심형 항공기인 UAM(Urban Air Mobility)도 2028년 상용화해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 혁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밝혔다.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 창업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정부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요청했다. 강원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영상으로 연결된 한 대표는 네이버가 AI 기술로 분석 가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데이터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네이버에게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우선 네이버가 AI(인공지능) 기술로 분석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AI 연구와 여러 사업에 자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동영상으로 연결된 정의선(영상 왼쪽)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롭게 사용, 활용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당정청 고위 인사도 모두 자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와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청와대 관련 실장과 수석 비서관,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5대 경제 단체장,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석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

딜은 정부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고 방역 주체로 나섰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마저 이겨낸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력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원팀’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환 기자 whan@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단위 : 조 원, 만 개) *2020년 추경 ~ 2022년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20~22	20추~25년	20추~25
디지털 뉴딜 ... 3개			
데이터 댐	8.5(7.1)	18.1(15.5)	38.9
지능형(AI) 정부	2.5(2.5)	9.7(9.7)	9.1
스마트 의료 인프라	0.1(0.1)	0.2(0.1)	0.2
그린 뉴딜 ... 3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20~22	20추~25년	20추~25
그린 리모델링	3.1(1.8)	5.4(3.0)	12.4
그린 에너지	4.5(3.7)	11.3(9.2)	3.8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8.6(5.6)	20.3(13.1)	15.1



하반기 국정동력 ‘뉴딜성패’에 달렸다

‘10대 과제’ 선정, 101조 투입...국민의례 영상서 일본車 등장 빈축

정부가 2025년까지 20조3000억 원을 들여 승용·버스·화물 등 누적 113만 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1만5000대까지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량도 2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D) 기반의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등 외부 충격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만들고, 4.5% 수준인 재택근무 사업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

하반기 국정동력으로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금융·환경·문화·교통 등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신속히 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5G 조기 구축을 위해선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흡서비스 1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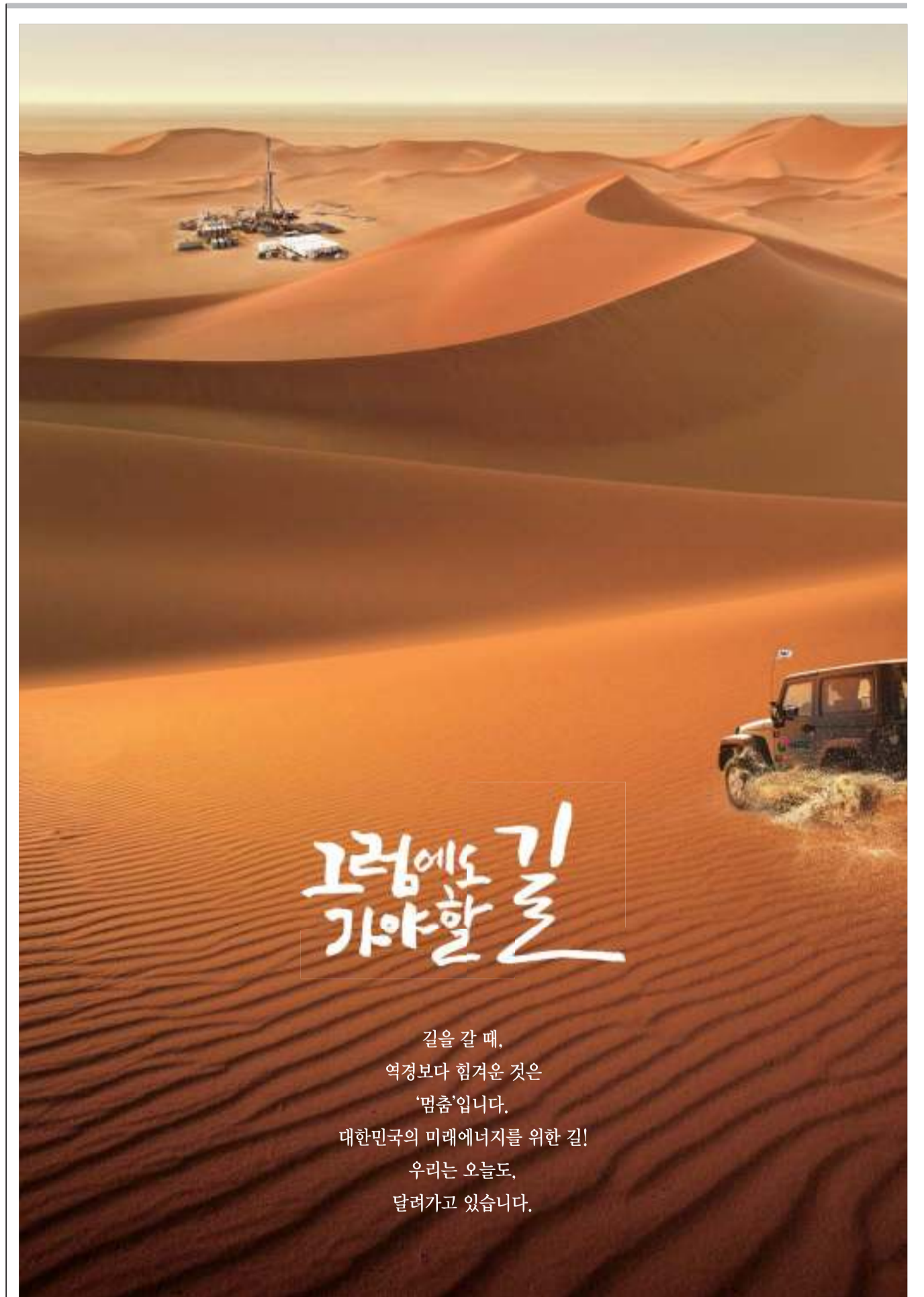
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 예측과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 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그린 뉴딜에선 노후학교 2890+알파(α)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제 보강공사를 실시한다. 초·중·고교 전체 교실(38만 실)에는 2022년까지 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 또 노후 PC·노트북 교체를 지원하고, 온라인수업용 장비를 보급한다.

정부는 이들 대표과제에 2022년까지 43조 4000억 원(국비 29조5000억 원), 2025년까지 100조9000억 원(국비 6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총 11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단일 과제 총사업비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20조3000억 원(국비 13조 1000억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데이터 댐이 38만9000개로 최다다.

한편, 이날 행사 직전 진행된 국민의례에서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일본 토요타의 친환경차 프리우스가 화면에 등장해 업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길을 갈 때,
역경보다 험거운 것은
‘멈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너지를 위한 길!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석유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국석유공사”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우리가 투정부리는 것 같나요?”

‘인국공 사태’ 취준생들의 항변

“어떤 업무가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직무에 관한 문제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에서 나와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권혁재(27세·경기 고양) 씨는 최근 벌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고용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권 씨는 이번 논란을 대하는 취준생들의 시각이 단순히 ‘타인의 행운을 시샘하는’ 정도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비정규직 ‘자리’와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화를 왜 동일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간 힘든 일 했으니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논리”라고 말했다.

애당초 정규직 뽑으면 될 일... 중간 전환 비합리적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짓는 것 아닌 ‘절차’의 문제

존버해 왔는데... 보상 없다면 절망뿐

노력보다 약자 되어 감정에 호소하는 게 중요

취업 어려울수록 ‘과정’의 공정함 엄격히 지켜야

이투데이는 지난 10~13일 노량진 고시촌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서 취준생들을 만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을 받은 취준생 대부분은 이번 사안을 ‘공정하지 않은 채용’으로 봤다. 대부분의 답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인식은 ‘누군가를 채용했다면 그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 상당수는 ‘노력과 보상’이라는 취업시장의 룰이 정치논리에 훼손된 사건으로 이번 사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정규·비정규 아닌 절차의 문제... 결과적 평등은 공정함인가= ‘공기업 올인형’ 취준생이었던 이모(27·서울 강서) 씨에게 ‘인국공 사태’는 남 일 같지 않다. 이 씨는 재작년 8개월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사무직군을 지원했지만, 최종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씨는 “나는 노력을 들여 경쟁을 뚫고 마지막 단계인 면접에서 탈락하면 바로 좌절인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아니다”라면서 “(인국공 사태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엄격히 구분 짓는 취업준비생들의 인식을 두고 ‘계급을 나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상당수는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년 넘게 공기업 입사 준비 중인 김모(27·서울 양천) 씨는 “애당초 사람을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될 일”이라며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뽑아놓고 중간에 전환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준생들이 특히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은 현 정부가 취업시장의 ‘합의된 룰’을 깨뜨렸다는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모든 지원자가 같은 시험을 통해 투명하게 경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명준(26·서울 송파) 씨는 “현재 정권에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약자가 되거나 약자처럼 보여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과정’에서 평등한 취업시장이 되도록 하는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력과 보상”의 원칙이 정치 논리에 무너졌다= 취준생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흐름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 사이에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역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등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보다 덜 노력한 누군가가 더 많은 혜택을 갖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취업이 어려울수록 이와 같은 ‘과정의 공정함’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취업준비생들은 강조했다.

‘노력에 따른 보상’ 원칙 무너져 일자리 줄어들자 불안감 증폭 분노·좌절하는 취준생 없도록 정부는 공정경쟁 감시자 돼야

전기직 엔지니어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동근(27·서울 종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후 달라진 채용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용 정책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국회의 원들 발언 모두 속 보인다”며 “분노의 이유는 정치권의 행동 때문이다”라고 했다. 권혁재(27세·경기 고양) 씨 역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내가 노력해서 뭐하나’ 싶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서 과거 비정규직 정규화 이후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장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박민지(23·서울 성북) 씨는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떻게 됐든 취준생에게 피해가 갈 게 분명한 상황”이라

고 지적했다.

◇“결과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 취준생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 몇몇 취업준비생은 정부를 향해 공정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주형(27·서울 노원) 씨는 “제발 정규직화, 노동의 정상화라는 결과적 정의를 위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못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일련의 정책에 피해를 입고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공정한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비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고졸 채용’ 등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채용이 과정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반 회사에 다니며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이우빈(28·서울 서대문) 씨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야 상관이 없었지만, (고졸 채용 전형의 경우) 더 쉬운 난이도의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되게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20대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에 더욱 공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모(26·서울 강서) 씨는 대학원 졸업 후 유학을 준비 중이다. 한 씨는 “20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문제를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토로해 왔음에도 그것을 투어린 학생들의 투정부림 여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존버(열심히 버티다)를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절망을 체감하게 된 점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김혜지 기자 heyji@·문수빈 기자 bean@ 박소은 기자 gogumee@·박준상 기자 joooon@



✓ 팩트 체크

공공기관 신규채용 줄었다?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추측들이 불거지면서 취준생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아직 크게 늘어나지 않아 당분간 신규 채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임금 인상 분쟁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비정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정규직 19만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9만1303명으로 집계됐다.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총인원인 41만8203명의 21.8%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모

올 공공기관 인건비 30.2조 지난해에 비해 9.8% 늘어 신규 채용 크게 줄일 상황 아냐 추후 임금 인상 분쟁 가능성도

가 커질수록 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연도별 총인건비’, ‘공공기관별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인건비는 지난해 27조5000억 원에서 9.8% 늘어난 30조292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최근 증가율이 높아졌고,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공공기관도 전체 339곳 가운데 94.4%인 320곳에 달했다. 실제로 매년 늘어나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8년 3만3716명에서 지난해 3만3477명으로 0.7% 줄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무리한 정규직 채용·전환을 하면 그다음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지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공공기관들은 아직은 ‘버틸 만’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책정했고, 정

규직과는 다른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B기관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새로운 직군을 만들고 임금데이블을 기존 용역비 수준으로 맞췄다”며 “현재 공무원들의 채용은 이들이 퇴직하면 새로 뽑는 방식으로 진행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안정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이 본사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A기관은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임금을 본사 수준에 맞춰 달라고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잠정수치〉

공공부문 19.7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95.8% 달성

비정규직 제로화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명절상여금·급식보조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도 부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상시 및 지속적 업무에 속하는 특수경비·시설 관리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406명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전환 노동자에게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연 416만 원 지급하는 등 처우도 개선했다.

올해 6월까지 이들을 포함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19만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완료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목표치(20만5000명)의 95.8%에 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9만73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자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잠정치로 이달 말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목표치인 20만5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853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2020년까

정규직 전환 목표 20.5만명 임박

국가기관 직고용 13만1988명
공공기관 자회사 4만978명 등
文대통령 중점 과제 실현 가능성

정부의 과속 정책이 부른 부작용

공식 채용과정 없이 정규직 전환
공정성 논란에 '역차별' 목소리
자회사 통한 고용 안정 불투명
비정규직 노조 투쟁 잇따라

전문가 "차별 시비 불가피 하지만..."

"근로자 업무 전문성 확대 절실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필요"

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내놓은 19만7325명의 전환 실적은 1단계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직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의 고용으로 이뤄진다. 6월 말 누적 기준 전환 방식별 실적치는 없는 상태다. 대신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19년 말 누적 기준 실적 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9만3252

명(기간제 7만3430명 및 파견·용역 11만9822명) 중 13만1988명(75.9%)이 공기업 등 국가기관에 직고용됐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며 나머지 1000명(0.5%)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작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 임금이 391만 원(16.3%) 증가했다. 명절휴가비(연 80만 원), 식비(월 13만 원),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등을 기존 정규직 직원과 차별 없이 지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을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다 보니 채용 공정성 논란, 임금 등 처우를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직고용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아르바이트로 일해온

보안검색 직원이 노력 없이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취업준비생과 기존 직원들은 궁극적으로 보안검색 근로자 등 비정규직 9785명을 정당한 채용 과정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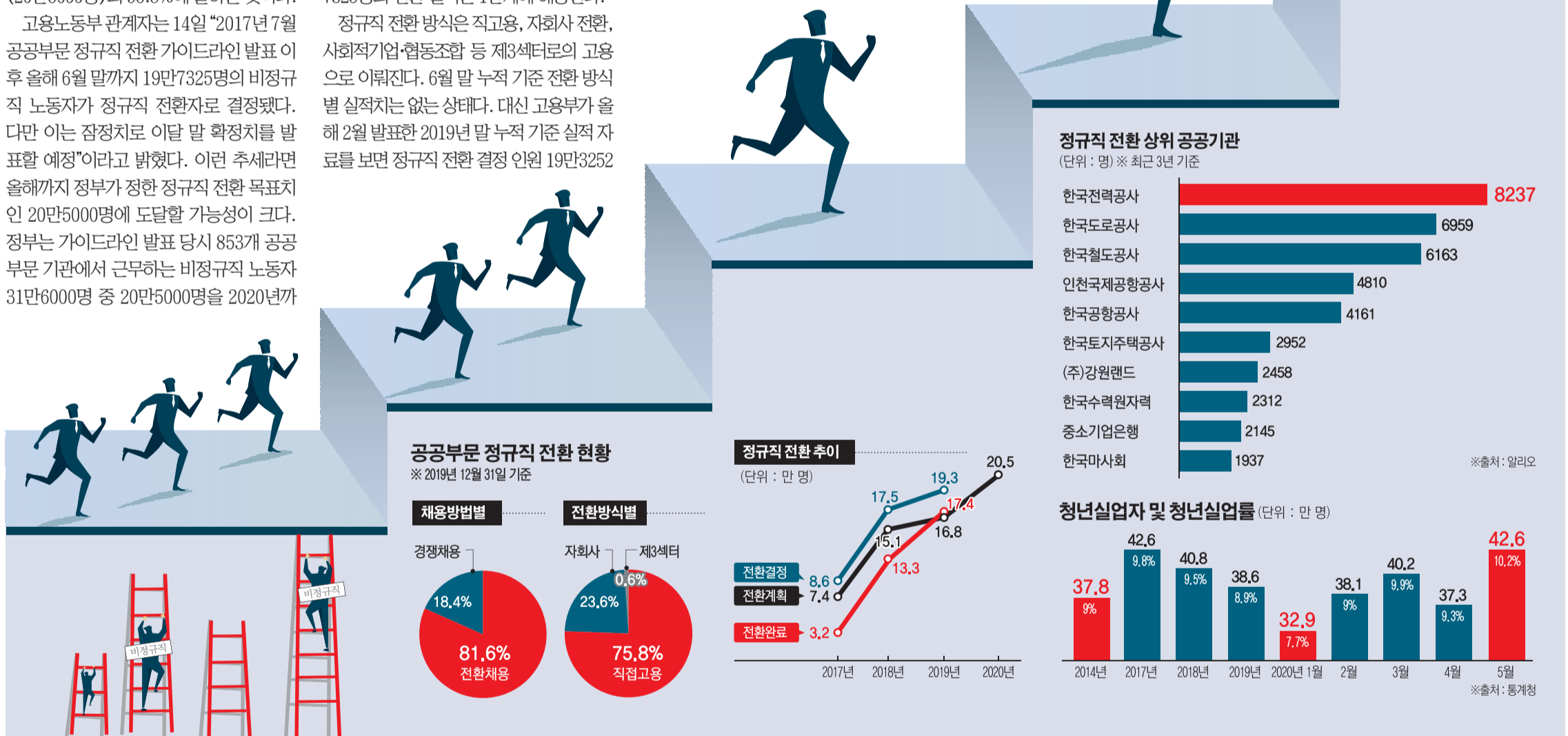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 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서도 파열음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다.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 보장이 불투명하고, 임금, 복지 등 처우 측면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인국공 사태처럼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현재 구직난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로서는 심각한 박탈감

과 공정성에 대한 회의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취준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책은 아쉽지만 하다고 꼬집었다.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우 차별 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앞으로 자회사가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 직장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문성 업무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위해 모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모회사와 자회사 근로자 간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립적인 조정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청년 체감실업률 사상 최고... '인국공' 분노 키웠다

올해 초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요금수납원 공개채용에 4177명이 몰렸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올해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것을 두고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청년 실업자(15~29세)는 42만6000명이고 청년 실업률은 10.2%에 달한다. 20대 고용률은 55.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

후 최저치고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포기자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6.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2018년 기준 첫 일자리에서 이직할 경험이 있는 청년층 취업 경험자는 62.2%인데 이들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점차 감소해 현재는 14개월 수준에 불과했다. 또 청년층 첫 일자리가

전일제인 비중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고 반대로 시간제인 경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에 첫 일자리를 경험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은 언제부터 심각해졌을까. 학계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을 겪으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신

규 구직건수는 0.9% 늘어난 7만8000건, 30대는 3.1% 늘어난 6만8000건에 그쳤다. 40대와 50대는 각각 9.9%, 12.4% 늘었고, 60대는 6.2% 증가했다. 새 직장을 갖는 청년들이 더디게 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침체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또 2018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 구직자의 채용문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 역력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과보호 등에 따른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결국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조 정규직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즉 이중구조가 매우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141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사협력 분야에서 130위, 해고비용 경쟁력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경쟁력 102위, 노동시장 51위 등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제경제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는 지난해 노동시장 경쟁력이 63개국 중 36위에 그쳤고 2018년에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생산성 분야에서 63개국 중 각각 53위와 63위로 하위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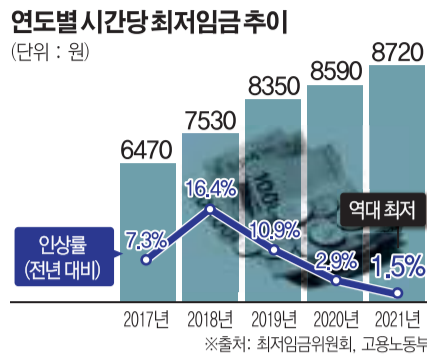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 기업과 노조가 함께 모여 우리 사회와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근로자 소득 개선보다 中企·자영업 고용유지 택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노동계 두 자릿수 인상 요구에 “인상 땀 경영난” 使 손 들어줘 1.5% 인상을 사실상 동결·삭감 노동계 재심의 요구 격해질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소득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에 방점을 찍어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이 7.7%로 박근혜 정부 7.4%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결국 문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공멸’이 돼 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으로 2.7%였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은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공익위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

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삭감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공익위원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즉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개선보다 고용유지를 택한 것이다.

더욱이 1.5% 인상률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과 같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작아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대 인상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반발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고용부 장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엔 의결된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고용부 장관 고시 전까지 재심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소상공인 빛으로 겨우 버텨... 최소 동결했어야”

경제계 일제히 비판

“코로나 위기 현실 반영 안해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촉구

한국경제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경영계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경영난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삭감 또는 최소 동결을 촉구해 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빛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이날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명한 뒤 이번 최저임금 소폭 인상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

기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소폭 인상이 편의점 평균 수익 감소를 더 부추기고 이로 인해 편의점주의 폐업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명품 할인에 지갑 연 소비자 14일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해외명품 대전 행사장에서 고객들이 옷, 신발 등의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동행 세일 기간 명품 상품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고, 재고 면세품 판매 행사도 1차 때 물량의 85%가 소진됐다. 연합뉴스

상반기 車 생산 20%·수출 33%↓ 개소세 인하에 내수 ‘나홀로 증가’

자동차 산업 코로나19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 성적표가 나왔다. 예상대로 생산은 20% 가까이, 수출도 33% 넘게 줄었다. 그나마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내수만이 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상반기 자동차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162만75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감소했다. 2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 재고 부족에 따른 일부 공장 가동중단과 3-6월 해외 판매수요 위축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등이 원인이다.

다만 산업부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기준 주요국 생산 증감률을 보면 인도(-53.1%), 브라질(-49.2%), 독일(-47.7%), 멕시코(-42.8%), 미국(-41.9%), 중국(-24.1%), 일본(-24.0%) 등으로 한국보다 부진한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국의 글로벌 생

산 순위는 4위로 지난해와 비교해 3계단 상승했다.

수출의 경우 주요국 락다운(Lock-down)과 해외판매 급감에 따른 현지 판매점 재고 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한 82만6710대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이 전년 대비 18.1% 감소한 78억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은 30.7% 줄어든 34억600만 달러를, 유럽 기타 지역으로는 99.0% 감소한 8억1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중동의 경우 16억7600만 달러로 31.6% 줄었고, 아시아는 8억2100만 달러로 73.7%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8.4% 감소한 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 중단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개소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93만464대를 팔았다.

한편 상반기 전기차(EV) 수출은 5만5536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1.9% 늘었다. 수소차(FCEV)도 올 상반기에 681대가 수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7% 증가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4대강 물 맑아진다... 정부 ‘수질오염총량제’ 확정

지자체 10년 내 오염물질 줄여야 개발 사업 시 하수처리장 고도화

한강과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총량 기준이 마련됐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맞춰 목표수질을 달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고시한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섬진강 수계 목

표수질을 고시했고,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하면서 2030년까지 목표수질은 모두 완료됐다.

환경부가 4대강 경제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해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목표 수질의 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mg/l)과 총인(T-P:mg/l)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는 2030년까지 BOD를 2020년 목표 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은 평균 27.2% 낮추는 것

이 목표다.

이번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고속도로 서창~김포 ‘HDC현산’, 오산~용인은 ‘현대건설’

민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를 각각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574억원)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고,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013억 원)는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을 연결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2020년 제

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두 고속도로는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해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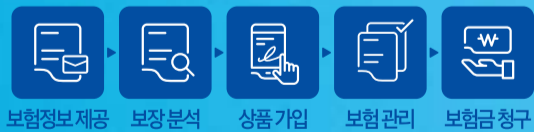
왜 삼성화재 RC가 당신에게 좋은 RC일까요?

24시간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답을 드리고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RC
당신에게 좋은 RC를 지금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삼성화재 RC만의 24시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보장분석부터 가입, 관리, 보험금 청구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서명 계약서로 환경보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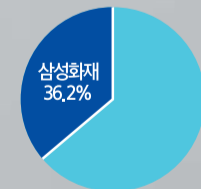


보험정보 제공 보장 분석 상품 가입 보험 관리 보험금 청구

고객 서비스로 쌓은 신뢰 우수인증설계사수 1위

장기유지계약, 장기근속, 신뢰도 평가 등으로
선정되는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RC (점유비 36.2%)

*20년 손해보험협회 발표 기준



*20년 우수인증 설계사 중
삼성화재 비율

김종인 “증세로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 후분양 전환을”

장기 ‘청년 모기지’ 운영해야
내년 보선, 비전 있는 인물 필요
기본소득 논의 차단해선 안돼



취임 40여 일을 넘긴 김종인(사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 모기지(주택 담보대출)’를 제안했다. 또 내년 4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잠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저금리화되고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다 보니 실물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상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선 아파트를 건설 후 판매하는 후분양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공간을 위한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 청년 모기지 제도는 청년 취약층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

연금과 모기지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힌 김 위원장은 오후에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내년 4월 재·보선과 관련해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후보와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 관심 있는 분이 하나둘씩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선까지로, 그는 통합당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민 인식,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 좋은 민심 등을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에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합당의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해서는 그는 “내게 ‘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고 거듭 묻는데,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여론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정욱·장성민 전 의원,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거론되는데 그는 “그중에 몇 분은 상상컨대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자신이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상임위 참석한 안내견 ‘조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통합당 의원이 참석하면서 그의 안내견 ‘조이’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추모 끝나자… “진상조사”

통합당 “비서실 지속적 방조…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

민주당도 일부 진상 파악 요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다음 날인 14일,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장례 기간 ‘입단속’에 나섰던 미래통합당은 참아왔던 의혹 제기와 진실규명 요구를 이어가며 전방위 공세로 전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내부자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 전달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

라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회의 통합당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희정·오거돈 사태에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적지 않다”며 “일단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의 대체적인 기류는 당 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착수 논의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유종현 기자 lamuziq@

北 “이인영·임종석에 기대 많다”

“한미관계 청산” 주장도

북한의 군사행동계획 보류로 대남비난이 3주째 멈춘 상황에서 북한의 선전매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호화적으로 표명했다. 이 같은 선전매체의 보도는 원색적인 대남비난이 3주째 멈춘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남측 인터넷 매체인 자주시보의 글을

축약·보도하면서 “이번 인사에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이어 “두 사람이 ‘한미워킹그룹’ 문제에 비판적인 말들을 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는 표현도 보도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의 조사를 인용해 남한 각계가 정부에 자주적인 태도를 갖고 친미시대 근성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 청산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연달아 보도했다.

‘동일의 메아리’는 이날 3쪽지를 할애해 대학생진보연합과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부산 시민단체 등의 한미워킹그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한 매체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새 외교안보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보도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워킹그룹, 사드,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남다른 능력
to
색다른 내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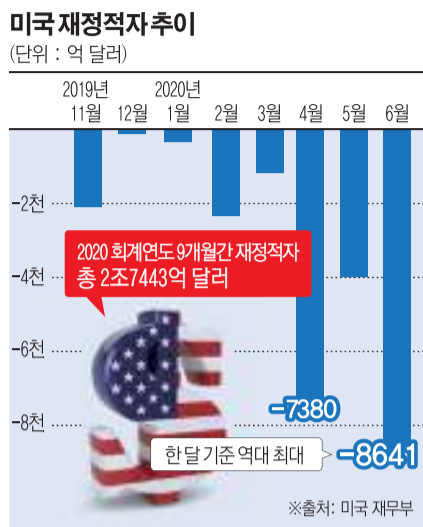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거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인터넷에서 미국을 일컫는 말〉

‘천조국’ 美마저... 코로나 돈 풀다 月 ‘1000兆’ 재정적자

실업급여 등 경기부양 지출 ↑
6월 적자, 역대 최고치 기록
연간적자도 사상 최대 될듯



미국 연방정부의 6월 재정적자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 도입으로 지출이 늘면서 재정 구멍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정부의 6월 재정수지가 8640억7400만 달러(약 1042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월 738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낸 지 두 달 만에 신기록을 다시 쓰게 된 것이다.

6월 재정적자는 1년 전(84억7700만 달러)의 약 100배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연간 재정적자(약 9842억 달러)와도 맞먹는 규모가 됐다.

6월 재정적자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가동, 실업급여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회가 승

인한 총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정부의 세출은 1조 1050억 달러로, 전년 동기(342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이 중 약 절반인 5110억 달러가 PPP 사업에 투입됐다. PPP는 지난 3월 말 통과된 2조 달러 넘는 슈퍼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 19 사태 동안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출 형식이지만 두 달 동안 근로자 급여 지급,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기

준 실업수당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한 것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미 의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패키지 법안에는 실업급여 추가 지급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 정부가 매 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반면, 6월 세수는 240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한 데다 경기 침체로 임금이 줄면서 소득세 수입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6월까지 9개월간 누적된 재정적자는 총 2조7443억 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47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 추세대로라면 9월 30일 끝나는 2020회계연도의 연방 재정적자가 총 3조7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연간 재정적자(1조 40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액수다.

6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시행하면 팽창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변효선 기자 hsbyun@

美, 100명중 1명이 확진자 캘리포니아, 경제재개 철회

코로나 재유행 조짐 선명
오리건주, 실내모임 금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뚜렷해지면서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해오던 주(州)들이 당초 계획을 서둘러 철회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4605명,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보다 2% 늘어난 약 334만 명을 기록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29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 100명 중 1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사망자 수는 13만 5400명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핫스팟이 된 플로리다주는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7% 늘어난 28만2435명에 달했다. 증가율은 미국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플로리다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만 명을 넘고 있어 웬만한 나라보다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 다른 남부 지역도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경제 재개 계획을 급철회했다. 주 전역에서 모든 술집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레스토랑과 영화관, 동물원, 미술관 등에 대해선 실내 영업을 금지했다. 감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이 13일(현지시간) 재개했지만, 아프리카 조류 전시관은 폐쇄된 채 남아 있다. EPA연합뉴스

헬스장과 미용실, 쇼핑몰도 실내 영업을 중단한다. 이번 규제는 최소 3주간 계속될 전망이다.

주내 로스앤젤레스(LA) 시와 샌디에이고시는 이번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지 않고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학생은 약 80만 명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왔지만, 코로나19 감염 억제에 실패해 1개월 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누적 확진자가 약 33만 명인데 그중 3분의 1인 10만9910명이 최근 14일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리건주도 이날 실내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지난 주에 5월 전체보다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다"며 조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가 지금 부러워할 단 한 사람 12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3일 동부 오지볼 마을에서 주민들의 환호에 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두다는 대선 결선투표에서 51.21%의 득표율로, 리파우 트샤스코프스키(48.79%) 바르샤바 시장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농민이 핵심 지지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 친구 폴란드 대통령의 역사적인 재선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지볼(폴란드)/EPA연합뉴스

‘자금난’ 손정의, 英 반도체 설계회사 ARM 손떼나

4년 전 38兆에 인수했지만
SW 매출부진에 ‘애물단지’

잇단 투자 실패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2016년 인수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홀딩스의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4년 전, 소프트뱅크는 산하 비전펀드를 통해 ARM을 320억 달러(약 38조5120억 원)에 인수,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 합병(M&A)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매출 부진이 계속돼 비전펀드의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에 걸림돌이 되자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소프트뱅크가 ARM 전체 또는 일부를 매

각하거나 기업공개(IPO)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현재 초기 단계인 매각 및 IPO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ARM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 매각이나 IPO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엘리엇 등 주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ARM의 재상장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고전하는 비전펀드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최대 41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과 자사 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RM은 세계 스마트폰 대부분에 탑재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기업

으로, 2016년 소프트뱅크 품에 안겼다. 당시 손 회장은 "ARM이 다가오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주축이 될 것"이라며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RM이 개발한 IoT 기기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판매는 소프트뱅크 인수 효과를 제외하면 제자리걸음이었다. ARM은 지난 주 자사 핵심사업인 반도체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에 집중하고자 산하 두 개의 IoT 서비스 사업부를 소프트뱅크에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ARM을 통한 IoT 시장 장악'이라는 손 회장의 구상이 실패로 끝난 셈이다. 비전펀드는 ARM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ARM과 관련한 검토는 손 회장이 3월 발표한 4조5000억 엔(약 50조4700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의 일환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의 적은 동지”... 인도 찍은 구글 ‘인 디지털화’에 100억 달러 투자

미국 IT 공룡 구글이 인도 투자를 확대하며 관계 강화에 나섰다.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밀착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손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가진 화상 회담에서 "인도의 디지털화를 위해 앞으로 5~7년에 걸쳐 인도에 약 100억 달러(약 12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는 인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인도가 다음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인도 투자는 '디지털화 펀드'를 통해 이뤄지며, 지분 투자, 협력 관계 조성,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글은 일찌감치 인도 디지털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눈뜬 기업이었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투자나 인수합병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술 패권 경쟁으로 미국이 대(對)중국 제재를 강화하면서 IT 공룡들은 인도 시장으로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13억 인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억 인구가 아직도 인터넷이 없는 디지털 '오지'에 살고 있다는 점이 인도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도 역시 미국 IT 공룡들에게 적극적인



구매를 펼치고 있다. 최근 중국과 국경서 육탄전을 벌이는 등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으로 더 기우는 분위기다.

중국인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절대 강자다.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는 인도 주요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큰손들이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의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6월 말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59개 앱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미국과는 관계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인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스 산하 지오플랫폼은 지난 4월 이후 페이스북과 인텔 등에서 156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지난 12일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도 지오플랫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IT 공룡들이 인도에서의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구글도 발 빠른 선점에 나선 것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방카슈랑스〉

사모펀드 이어 '방카'도 제동... 은행 '수수료 수익' 먹구름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수익원 감소
방카 선납수수료로 실적 올렸지만
금감원 "형평성 어긋나" 제도 폐지



은행권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이어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방카슈랑스 '선납수수료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들은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등으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자, 방카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렸다. 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인 데다 수수료 수입도 쏠쏠해 눈독을 들였다.

◇이달부터 '선납수수료 제도' 폐지=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초점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의 '선납수수료 제도'였다. 선납수수료란 미리 낸 보험료에 대해 수수료도 당겨 주는 제도로 올해 초 교보생명이 처음 도입했다. 예컨대 고객이 12개월간 내야 할 보험료를 1회

에 모두 내면 이에 해당하는 1년 치 수수료를 분급 없이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선납수수료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선납수수료 제도는 회계 원리상 맞지 않고, 채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원리에 따라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돼야(수익비용대응 원칙) 한다"라며 "하지만 일시납 저축성 상품이 만들어질 때부터 월납에 대응되는 수수료가 나가도록 설계된 건데 비용이 조기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채널에서는 선지급수

료 개념이 없어 채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지급수수료는 감독규정에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결국 업계 합의를 통해 해당 제도는 이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해당 문제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서 처음 지적됐고, 보험감독국으로 이관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선 방카슈랑스 채널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보험업계 담당자들의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곳이 경쟁력이 높은 수수료제도를 만들면 경쟁사

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고, 수익원을 잃은 은행들의 수수료 압박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DLF와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연기 등에 따라 고위험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분위기고 저금리로 투자자들의 정기에·적금에 대한 니즈(Needs) 또한 줄어들며 영업창구에서 판매할 상품이 고갈된 상태"라며 "수익원이 줄어들어 방카가 뜨고 있는 분위기를 틈타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다른 생보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선납수수료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5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311억3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266억7000만 원 대비 16.7% 증가했다.

◇선납수수료 막자... '한달 만에 2배' 절판마케팅 횡행=문제는 선납수수료 제도 폐지가 예정되자, 보험권에서 지난달까지 절판마케팅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차역마진이 극심한 상황에도, 은행들이 방카채널

에 집중하는 틈을 타 '실적 쟁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납수수료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교보생명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단기납 저축성보험 실적은 교보생명 110억 원, 푸본현대 80억 원 등으로 전월 대비 2배가량 판매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최근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왔다. IFRS17 제도하에서는 저축성보험에서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쌓아 두어야 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 회사는 제도 도입 시 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납수수료 제도는 수익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업권에서도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잠깐의 자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다시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는 생보사들의 경우 향후 재무건전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www.douzone.com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더존 ERP 10

- 인류는 제0(O)에서
- 가능성을 발견하고
- 끝없는 도전으로
- 성공에 다가갔으며
- 위대한 발명으로
- 앞선 시대를 열었다

더존이
그래운 것처럼-

- 그리고, 마침내
- 새로운 1을 만나
- 가장 혁신적인
- 10의 탄생-

더존 ERP 10
가장 진화된 플랫폼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Platform Based ERP - 더존 ERP 10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ERP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경영지표 제공
- RPA기능을 통한 업무 자동화
- 그룹사 및 글로벌 경영환경 지원
- 분산된 정보 및 자원의 연계와 확장
- 표준원가 기반 실시간 분석 지원

DOUZONE

〈우리은행〉

권광석 행장의 '전국일주' 영업동력 강화 힘 신는다

코로나19 여파 경영회의 축소
영업점 40여 곳 둘러 현장 소통

경영전략회의가 축소되면서 권 행장이 직접 영업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보러 가겠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행장은 취임과 동시에 현장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권 행장은 첫 행보로 남대문시장 지점을 방문, 현장 직원들과 소통했다. 4월부터는 전국 10여 개 영업본부를 돌면서 프라이빗뱅크(PB)들을 만나는 등 현장경영에 속도를 높였다.

그는 4월 첫 조직개편으로 미래금융디자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감신뢰팀과 혁신추진팀으로 구성했다. 공감신뢰팀은 영업현장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등 영업현장 소통 및 공감에 기반한 현장중심 은행문화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그동안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영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현장경영에 나서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농협銀, 5억 달러 소셜본드 발행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지원

NH농협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1(무디스), A+(S&P)를 부여받았다. 발행금리는 투자자의 높은 관심에 따라 최초 제시금리보다 40베이스포인트(bp) 낮은 1.306%로 결정됐다. 이는 미국 5년물 국제금리에 100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청약은 132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23억 5000만달러가 모집됐다. 투자자 지역별로는 아시아 62%, 유럽 15%, 미국 23%이고 투자 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 55%, 은행 22%, 보험사 21%, 기타 2%로 구성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마음이 쓰여서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나눠쓰는 걸 보면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KT는 그 마음을 닮아 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닮아 가겠습니다

마음을 담다 **kt**



LG전자, 페이팔·아마존·시스코와 '디지털 혁신 동맹'

박일평 CTO '이노베이션 카운실' 의장 맡아 첫 회의 AI·클라우드·네트워크 전문기업 CTO 등 12명 참여

LG전자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LG전자는 최근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연구개발(R&D)혁신을 위해 글로벌 전문가와 교류하는 '이노베이션 카운실(Innovation Council)'을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카운실은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이 의장을 맡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모빌리티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과 인사이트를 통해 미래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LG전자는 첫 번째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열고 멤버들과 미래기술 트렌드와

산업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번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카운실 멤버는 로봇 공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지능형 로봇 스타트업 '로보스트.AI'의 CTO 로드니 브룩스, 글로벌 결제서비스 기업 '페이팔'의 CTO 스리 시바난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담당 아드리안 쿡크로프트 부사장,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시스코'의 클라우드 플랫폼 및 솔루션 그룹 킵 콧튼 부사장, 하이파이 오디오 전문업체 '매킨토시그룹'의 CEO 제프 포지 등이다.

이날 모임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드류 응과 서울대학교데이터사

이언스대학원장 차상군 교수도 참석했다.

이번 첫 카운실에서 박일평 사장은 LG전자가 제조업을 넘어 인공지능 등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간다는 디지털 전환 비전을 공유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각 산업의 변화 방향'이란 주제로 초청 연사인 서울대 차상군 교수와 모빌리티, 로봇틱스 분야의 전문가가 각각 발제를 하고, 카운실 멤버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멤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 성공한 사례를 공유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시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전환에 기반한 미래기술 역량과 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박일평(앞줄 왼쪽 세 번째) LG전자 사장이 14일 화상회의로 열린 첫 번째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韓 하늘길 열리자 전 세계 '이유 있는' 관심

외신 '국제선 확대' 기사 줄이어 항공편 운항 재개 가능자 역할 韓 경유지 삼아 입출국 기대도

최근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들이 서서히 국제선 노선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외신들이 줄줄이 관련 기사를 내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입출국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는 데다 향후 항공편 운항 재개 확대여부를 가능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자국과 한국과의 노선 운항 확대 움직임에 대해 보도했다. 차이신은 14일 "양국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주 10회인 한중 항공 노선을 최대 주 20회 노선 운항으로 기존 대비 2배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날 경우 미국, 유럽 등에 발이 묶여 있던 중국인 승객들이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글로벌(flightglobal)도 한국과 중국 움직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언급했다. 플라이트글로벌은 13일(현지시간) "한국 항공사들은 지난 12일 난징을 시작으로 광저우, 선전 등 4개 노선의 7월 취항에 이어 향후 3개 노선 추가 운항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항공컨설팅 전문업체 CAPA도 한국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노선 재개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CAPA는 "대한민국 국토부는 중국과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면서 "7월 중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난징, 대한항공은 광저우, 진에어는 시안, 에어부산은 선전행 비행기를 띄운

다"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 공영 라디오 방송국인 뉴질랜드라디오(RNZ)는 "북마리아나제도(CNMI)가 다시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예정인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각각 8월, 9월 항공편 운항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 항공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항공노선은 최대 20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인천-난징(아시아나)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인천-광저우(대한항공), 인천-선전(에어부산), 제주-시안(진에어) 노선도 이달 중 양국 항공당국에 운항허가를 거쳐 운항을 재개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행 운항을 항공사당 1개 노선으로 줄이고, 운항 횟수도 주 1회로 제한해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차·가스공, LNG 기반 수소충전소 추진

융·복합 충전 합작사 설립 MOU

현대자동차그룹과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인프라 확대와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사는 수소 인프라 사업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상용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가스공사는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수소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해의 '그린수소' 도입을 포함한 수소 인프라 전반의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 발굴 △상용 수소전기차용 융·복합형 충전소 합작회사(조인트벤처) 설립 △이산화탄소(CO2) 포집 활용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정부는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해 저렴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과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으로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



지영조(왼쪽) 현대차그룹 시장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 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LNG 기반의 융·복합형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소전기버스 등 상용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융·복합형 충전소는 수소 생산, 충전, 판매, 연료전지 발전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수소충전소다. 천연가스로서 수소를 직접 추출해 수소 판매원가를 대폭 낮추고, 충전하고 남는 수소는 외부 판매하거나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j@

국제 항공 동맹체 스카이트임 '안전한 여행' 홍보 영상 제작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승객들에게 항공 여행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자사가 속한 항공 동맹체 '스카이트임'이 9일 항공 여행은 코로나19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상 제작에는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 등 다른 항공 동맹체도 참여했다.

"친애하는 여행객들에게" 제목의 1분 분량 애니메이션은 공항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셀프 체크인, 기내 안전 및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에 대비해 안전한 여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사항이 소개되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공항 및 기내에서 승객과 항공사 직원들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는 것 △공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해파 필터를 통해 기내 공기 중 오염 물질 99.99% 차단 등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크리스틴 콜빌 스카이트임 최고경영자(CEO)는 "강화된 항공 보건 및 위생을 위해 항공 업계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한화디펜스 '생산성경영' 국내 최고 등급

생산성본부 PMS '레벨 8' 인증

한화디펜스는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 심사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레벨 8'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PMS 인증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레벨 8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한화디펜스는 7개 심사 항목 중 △리더십 △혁신 △고객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프로세스 등 6개 부문에서 레벨 8을 받으며 PMS 역대 최고 점수

인 722.6점을 기록했다.

심사단은 한화디펜스가 지난해 1월 합병을 마친 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전략 수립, 업무 프로세스 혁신, 성과 창출 연계 고객관리 강화,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 프로그램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는 "합병 후 단기간에 프로세스, 표준통합 등 화학적 결합의 결과가 레벨 8로 증명된 것"이라며 "우리가 경험하고 추진해온 것들이 협력사나 계열사에 바람직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일부 재택근무 검토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부서에 대해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수원 가전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 특성상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직원과 해당 부서나 같은 건물을 출입한 직원, 해외 출장자, 임산부·기저질환자 등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재택근무를 진

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내부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수원사업장 생산라인 등을 제외하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등 일부 직군에 대한 부분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 개발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LG화학, 울산공장 문 닫는다

▶면서 계속

울산 공장 철수에 대해 LG화학은 지난 2-3년간 고민해오다가 최근 일련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자 과감하게 가동을 멈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나주에서 같은 가소제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70년대에 준공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안전 관리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주공장에서 가소제를 생산 중이어서 울산공장 가동 정지로 인한 사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울산공장 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희망에 따라 여수 등 다른 근무지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LG화학의 울산공장 철수로 추가로 공장 건물 및 부지를 확보하게 된 LG하우시스에 아직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LG화학은 최근 '환경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이며 차별화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에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PA(무수프탈산)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업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의선 부회장 ‘그린 뉴딜’로 재계 중심에 서다

현대차 경영 전면 나선 지 2년
미래차 이끌며 정·재계 동분서주
삼성·SK·LG ‘배터리회동’ 주도
“편법보다 정공법”...협업 꾀걸음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재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엔 이재용(왼쪽 사진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 만나 배터리 협업을 주도했다. 사진제공 각 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지 약 2년 만에 재계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재계 총수
들과 회동을 정례화하는 한편, 정부의 ‘한
국판 뉴딜’ 보고대회에는 재계 대표로 직
접 나서며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4일 청와대의 한
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재계 대표로 나
섰다.

이날 청와대 행사장에 실시간 영상으로
등장한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친환경차
사업은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를 연결
한 라이브 영상 속 그는 시종일관 특유의
진지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그린 뉴딜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 전략이 재계 어느
기업보다 ‘그린 뉴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 수석부회장 역시 차분하면서도 뚜렷한
어조로 향후 전략과 목표치를 내세웠다.

이를 지켜본 재계 관계자는 “경영 전면에
나선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그룹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재계를 대표해 국민보고대회에
나선 정 수석부회장은 올해 들어 운신의 폭
을 확대하며 재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5·7월에는 현대차그룹의 ‘미

래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주요 그룹 총
수와 잇따라 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
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이른바
‘배터리 정상회담’을 연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차 전략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안
정적인 공급은 물론, 이들 3사와 전략적
협업을 강조했다.

사실상 정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재계
가 소통하고 움직이게 된 셈이다.

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재계 구도는 향
후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향후 3대
전략의 핵심으로 △개인용 비행체 △자동
차 △로보틱스를 꼽았다. 올해 초에는 미
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
기술(IT) 박람회 ‘CES 2020’을 통해 도
심항공 모빌리티 전략도 구체화했다. 일찌
감치 미래 전략을 확정한 것이다.

사실상 정 수석부회장과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재계의 경영전략이 재편될 것이
라는 전망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삼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재계
의 관례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
데믹을 앞두고 서둘러 중국 주재원 철수를
결정한 것, 사업장 방역과 코로나19 대응
전략 수립 역시 정 수석부회장의 선제적
결단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내부적으로
준법정신이 강조되는 것은 물론, 편법 대
신 정공법을 택하는 기조가 이전보다 뚜렷
해졌다”며 “현 시점에서 재계 주요 그룹사
 가운데 ‘오너 리스크’가 가장 적은 만큼,
향후 정 수석부회장의 보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글로벌 車업계, 코로나發 인력감축 “국내차 고용 유지, 정부 지원 절실”

차산업협회 “추가 지원 나서야”

GM, BMW, 다임러 등 세계 자동차 업
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인력 감축을 단행하거나 예고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고용을 유지하
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
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어려
워진 차 업체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계획
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먼저, GM은 지난 5월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인력을 8% 감축했고, 미국 테네
시주 공장의 3교대 인력을 680명 줄였다.

르노는 슬로베니아 공장 인력 3200명
중 400명을 줄인 데 이어, 프랑스 공장 인
력 4600명을 포함해 세계 6개 공장에서 1
만5000명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BMW는 계약직 근로자 1만 명의 고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희망퇴직을
지원받아 정규직 5000명도 줄일 것을 검
토하고 있다.

다임러는 2022년까지 1만 명을 줄이기
로 한 데 이어, 2025년까지 1만 명을 추가
로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닛산은 미국 공
장 1만 명, 영국 공장 6000명, 스페인 공장
3000명 등 총 2만여 명을 줄일 것을 검토
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영국 공장의 계약직
1000명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쓰비
시도 태국공장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고,
맥라렌(1200명), 벤틀리(1000명), 에스
턴 마틴(500명)도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
았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는 코로나19 사
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등
에 따른 견조한 내수로 고용을 최대한 유
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수요 감소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어 업체의
고용 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KAMA는 국내 차 업계의 더 큰 어려움
을 막기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휴업
규모율 요건을 100분의 20에서 과거처럼
15분의 1(약 6.7%)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
금 지원 기준을 ‘전(全) 사업장’에서 생
산, 영업, 연구개발 등 사업부별로 전환하
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국내 완성차 업
계는 생산라인 운영 속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최
근에는 일부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나 제도 개선 등 정
부의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
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모듈 신공장 완공

현대중공업그룹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
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태양광 스마트팩
토리를 완공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음성에 750
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신공장을 증설하
고 8월 초부터 초고출력 신제품 양산에 돌
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능
력(1.35GW)은 기존 600MW보다 2배 이
상 늘어나게 됐다.


이전에 완공된 신공장은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과 무인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 원자
재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생산까지 모든 공
정의 이력과 품질을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물류시스템을 자동화해 생산효
율을 약 20% 높였으며, 각종 장비의 상태
와 운영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고도
화된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신공장에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대면적(M6:166mm×166mm) 태양광 모듈
신제품이 생산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쫄~쫄 굶으면 뭘재미로 사니?



다 먹고 다이어트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다 먹고다이어트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1,200mg 함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분을 위해 설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


건강한 한국여성의 질에서 찾은 특허유산균
이비발렌스, 장까지 더 건강하게! 7종 유산균이 이로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끝까지 살아가는 식물성 친환경 SP코팅
담즙산, 위산에도 깨끗이 특허 받은 코팅 기술로 장내 생존율이
매우 우수하여 유산균을 끝까지 확실하게 전달

5가지 **무첨가**
착색료, 합성향료, 감미료, 스테아린산나트륨, 이산화규소 무첨가

영국산 **비타민C 30mg**
식이조질과 다이어트 균형잡힌 식사가 어려울 때

※ 적절한 운동, 식이조질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가격까지 짹~짹~ 빠드리는 **이람비스토어**
2개월치 구입하면 1개월치가 공짜! 그리고 추가할인까지!
2개월치+1개월치 = 165,000원 = 99,000원
500세트 한정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제조원: (주)메디오전 · 판매원: (주)쇼박스

|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 아람비스토어 | 주문 및 문의전화 02-6743-3301

이통3사, 코로나에도 2Q 선방... 영업익 15% 늘 전망

SKT '티브로드 합병' 영업익 개선
KT, B2B 사업 전년비 7.6% 증가
LGU+, 스마트홈 사업 매출 성장
"3사 영업익 합계 8760억 전망"

기업명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KT	3318억	15.1%↑	3.2%↓
SK텔레콤	3291억	2.0%↑	9.0%↑
LG유플러스	2151억	44.9%↑	2.1%↓
합계	8760억	15.3%↑	3.2%↓

※출처: 하나금융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우려가 계속되던 이통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FN가이드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통신서비스 실적전망 리포트에서 통신 3사가 2분기당초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8760억 원(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면 선방한 실적이 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리수 증가하고 시장 컨센서스(추정치)였던 8526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일회성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마케팅 증가 폭도 적어 5G 가입자 유치 부진에 따른 매출액 성장 폭 둔화에도 양호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37%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SK텔레콤은 2분기 개선이 예상된다. 영업이익이 329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 전 분기 대비로는 9% 증가

한 것이다. 일회성 비용이 당초 우려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티브로드가 4월부터 연결로 편입된 것과 마케팅 비용 증가 폭이 미미하다는 점이 개선 이유로 주목됐다. 신영증권도 SK텔레콤에 대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효과를 예상했다. 신영증권은 2분기 통신산업 리포트에서 SK텔레콤에 대해 '격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2분기부터 SK브로드밴드에 티브로드 연결 실적 반영도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SK브로드밴드의 실적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매출은 9323억원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티브로드 성과(약 165억원) 포함해 615억원으로 추정했다. 향후 가입자 유치 위한 마케팅 비용 절감 등 합병 시너지 효과 본격화되며 수익 성장을 예상했다. KT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융과 호텔 자회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감소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하나금융투자는 KT가 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영업이익 증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영업이익이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 13% 감소한 것이다. 신영증권은 기업시장(B2B) 사업 성장 본격화를 기대했다. KT 2분기 B2B 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7367억 원으로 전망했다. 연간 기준으로 B2B 전체 매출액은 약 3조 원 수준이다. IDC(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성장에 힘입어 AI/DX 사업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B2B 성장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라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후 상반기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기 이익 성장 추세로 이미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연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15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전 분기 대비로는 2% 감소했지만, 여전히 시장 추정치(2017억 원)보다는 상회한 실적이 예상된다. 신영증권은 실적 증가 이유로 5G 증가를 이루고, IPTV를 포함한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성장도 지목했다. 특히 6월 중 LG유플러스와 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인상 영향으로 평균 약 20% 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KB증권 통신 애널리스트는 "LG유플러스 실적이 기존 추정치를 상회하는 이유는 통신업종의 공통 이슈인 마케팅 비용 감소와 함께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의 마무리로 IPTV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리니지M’ 21년전 원조 리니지로 돌아간다

엔씨, 모바일 출시 3주년 맞아
하나의 세계 ‘마스터 서버’ 공개
5번째 에피소드 업데이트도



엔씨소프트(엔씨)의 리니지M이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 리니지M은 1998년 출시해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PC MMORPG ‘리니지’를 모바일로 옮겨온 게임이다. 출시 전 진행한 사전예약부터 550만을 기록하는 등 많은 기대 속에 지난 2017년 6월 문을 열었다. 서비스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리니지를 벗어나 리니지M만의 오리지널리티로 새로운 향해를 시작한다’고 선언한 뒤 독자적인 클래스와 콘텐츠를 선보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3주년 맞아 ‘하나의서버’로 돌아간다. 마스터 서버 예고 = 엔씨는 언택트에 발맞춰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엔씨, 리니지M, 이용자가 하나가 되어 완성한 3년’이라는 뜻을 담은 ‘TRINITY(트리니티, 삼위일체)’를 통해 감사 인사와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컨퍼런스 ‘TRINITY’는 김택진 CCO(최고경영책임자)의 키노트 스피치로 막을 열었다. 김택진 CCO는 이용자에 대한 감사

의 인사와 함께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하던 21년 전 최초의 리니지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마스터 서버’를 소개했다. 마스터 서버는 전 서버의 이용자가 만나 대결하거나 협력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3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이는 마스터 서버 콘텐츠는 △아덴공성전 △영웅들의 땅 △마스터 레이드 등 3종이다. 3종의 콘텐츠는 3주년 업데이트 이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리니지M 다섯 번째 에피소드 ‘타이탄’ 업데이트, 신규 클래스와 신서버 추가 = 엔씨는 3주년을 기념한 다섯 번째 에피소드 ‘타이탄’을 업데이트했다. 이용자는 신규 클래스 ‘광전사’, 신규 서버 ‘기르타스’, ‘TJ의 쿠폰’ 3종 등을 리니지M에서 만날 수 있다. ‘광전사’는 리니지M의 10번째 클래스다. 원작 PC 리니지의 ‘전사’ 클래스가 강력한 용인 ‘발라카스’의 힘을 얻었

다는 스토리를 더해 만든 리니지M 오리지널 클래스다. 높은 체력을 바탕으로 적에게 돌진해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 ‘광전사’는 △일정 거리 내의 적을 광전사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동과 텔레포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데스페라도’ △앞으로 돌진 후 충돌한 대상을 확률적으로 기절시키는 ‘차지’ 등의 스킬을 사용한다. 이용자는 신서버 ‘기르타스’에서 리니지M을 플레이할 수 있다. ‘기르타스’는 성장 시스템 일부를 비활성 상태로 여는 ‘오리지널 서버’다. 이용자는 단계적으로 열리는 성장 요소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업데이트 사전 예약에 참여한 이용자는 오는 8월 5일 정기점검 전까지 ‘고급 7점 4셋 제작 티켓(기간제)’, ‘+3 룬티스의 귀걸이 교환권’, ‘+3 스냅퍼의 반지 교환권’ 등을 받는다. 모든 리니지M 이용자는 ‘TJ의 3주년 감사 선물’을 300 아데나(게임 내 화폐)로 얻을 수 있다. 선물에는 ‘TJ의 쿠폰’ 3종(일반 장비 복구권, 변신·마법인형 합성권, 상점 장비 복구권)이 들어있다. 3주간 사용 후 컬렉션에 등록할 수 있는 ‘3주년 특별 팔찌’와 60레벨 이하 캐릭터의 성장을 지원하는 ‘3주년 성장 상자’도 받는다. 이재훈 기자 yes@

SK(주) C&C ‘스타트업·개발자’ 모바일 테스트 서비스

SK(주) C&C는 14일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웹·앱 테스트 서비스인 엠티웍스(mTworks)를 위시켓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시켓은 국내 14만여 스타트업 및 개인 개발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내 IT 아웃소싱 플랫폼이다. 위시켓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기업 고객들에게 디지털 IT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 개발 회사와 프리랜서를 연결시켜 준다. 양사는 ‘위시켓 스토어’에 스타트업·개



인 개발자 등 위시켓 회원 전용 엠티웍스 서비스를 공개한다. 위시켓 스타트업 및 개인 개발자 회원 누구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모바일 웹·앱 테스트 서비스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이용한다.

위시켓의 스타트업 및 개인 개발자 회원들은 월 16만1700원이면 인터넷 접속을 통해 SK C&C 엠티웍스 모바일 테스트 센터 내 100종의 모바일 기기를 월 2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금융과 유통, 게임사 등 대형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복수 단말기 대상 테스트 시나리오 동시 적용 △반복·예약 테스트 △테스트 결과 자동 통보와 오류 리포팅 기능 △다자간 테스트 화면 공유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크린샷, 동영상 녹화 기능 등으로 테스트 결함 내용도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공장 설립 절차 무료서비스 받으세요

산단공, 등록·업종변경 업무대행
공장 설립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료로 승인부터 등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무료대행 서비스를 통해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수도권 내 기업체들에 인허가 및 측량·환경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공장 설립이 필요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대거 투입해야 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 관계 법령도 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다양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에 의해 절차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 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도 안내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및

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 내 기업체에 130건의 상담을 진행, 총 119건의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했다. 유형별 세부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등록이 73건(61%)로 가장 많았고 신설(제조시설설치)승인 6건(5%), 업종변경 등 24건(20%) 등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민간 건설팅에 공장설립을 의뢰할 경우 건당 50만~5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3억 원의 기업 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공장의 등록, 산·중·소, 업종변경, 창업 등 공장설립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센터장은 “서울공설센터는 서울시 및 경기동북부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설돼 20여 년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며 제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으로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한샘, 가구 익일배송 시대 연다

‘내맘배송’ 상품 700개로 확대
한샘이 ‘내맘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서가수도 익일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될 전망이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온라인 한샘몰을 통해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가구 배송 및 시공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내맘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맘배송 서비스는 홈 인테리어 기업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에서도 배송, 시공을 함께 제공하고 날짜 지정까지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다. 통상 가구 제품은 전문 시공 기사에 의해 설치가 필요한 만큼 제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왔다. 지난해 도입했던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 이유다. 한샘은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이

달부터 서비스 가능한 품목을 늘리고, 최소 1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원하는 날짜에 한샘 가구의 배송, 설치까지 지정 가능한 ‘내맘배송’ 서비스로 확장 운영키로 했다. 한샘은 평균 7일 이상 소요되던 옷장, 드레스룸 배송 기간을 최소 이틀로 단축하고 상품 주문 후 설치공과 및 제품 크기에 대한 간단한 전화상담을 진행한 뒤 빠르게 그 다음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최대 30일 배송일 지정 서비스는 오전, 오후까지 세분화해 선택 가능하도록 해, 가구 설치일에 맞춰 휴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개선했다. 주문 후 다음날 배송 및 시공이 가능한 모델도 총 4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가구, 수납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기존 30여 개에서 700여 개에 달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분명, 이기나긴 골목에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얼어붙은 이 골목에서
당신의 어깨는 한없이 내려앉고
당신의 한숨은 끝없이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믿습니다
이 골목의 고비만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끝이 어디라도
신한은행은 당신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의 힘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이시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관련 금융지원

- ▶ 피해 중소기업 보유 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 ▶ 피해기업 및 종업원, 코로나 19 확진자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
- ▶ 대구, 경북지역 비대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개인고객)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운영

- ▶ 경영애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 ▶ 사업영위 관련 법률, 세무, 노무 분야 상담
- ▶ 서울 지역 총 3개 운영 중 (중부, 남부, 강남)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 ▶ 신한은행 거래 개인사업자 대상 무료 광고 지원
- ▶ 신한은행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 / 포스터를 통한 광고 게시
- ▶ 전국 32개 영업점에서 시행 및 연내 확대 예정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상담신청은 신한은행 App '신한SOL'에서 메뉴 → 간편서비스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 신한SOHO성공지원센터의 경로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상단 QR 코드로 바로 접속 가능)
 ※금융지원 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0391-1호 (유효기간 2020.04.10~2021.03.31)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

정유경의 '뷰티홀릭'... 유럽 럭셔리 화장품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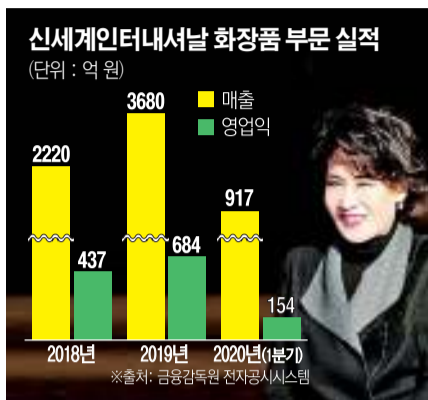
신세계인터내셔널 '스위스 퍼펙션' 지분 100% 인수
인지도 상승·해외 진출 교두보... 백화점 등 B2C 공략

정유경 사장이 이끄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육성에 힘을 쏟는다. 비디비치, 연작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는 면세 채널 중심으로 유통되는 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아쉬운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신규 브랜드 인수 및 개발을 통해 거침없는 브랜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럭셔리 화장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13일 스위스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Swiss Perfection)'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최고급 스킨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위스 퍼펙션은 1998년 론칭한 최고급 스킨케어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스위스의 전통과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100%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로 유명하다. 최첨단 노화 방지 솔루션을 개발해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0개 국의 최고급 호텔과 요트에 있는 스파와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세럼과 크림류 가격은 50만~100만 원대에 이른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스위스퍼펙션을 국



내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 글로벌 소매시장(B2C)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3년 내 중국에도 진출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울 예정이다. 중국은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2년 메이크업 브랜드 비디비치를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어 스웨덴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 이탈리아 뷰티 브랜드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인수했고, 2015년에는 화장품 편집숍 '라페르바'를 론칭했다. 2017년에는 프랑스 향수 '딥디크', 2018년 미국 메이크업 브랜드 '아워글래스' 인수에 이어 자체 화장품 브랜드 '연작'까지 론칭하며 화장품 사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화

장품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사업은 2018년만 해도 전체 매출의 19.8%, 영업이익의 64.4%였지만, 지난해에는 화장품 사업 매출이 전체의 25.8%, 영업이익은 81%로 불어났다.

올해 1분기에는코로나 여파로 화장품 사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1.1%, 35% 줄어든 917억원, 15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화장품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커졌고 패션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화장품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128.8%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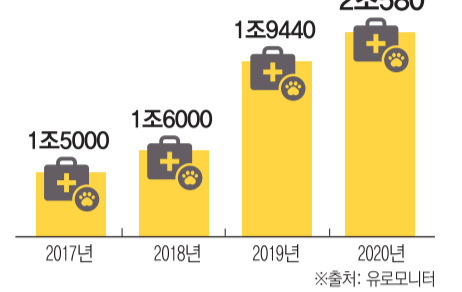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5년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과 합작법인으로 만든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해 연작, 비디비치 등 대표 브랜드를 제조했지만,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다 이달 초 지분을 모두 팔고 화장품 제조에서 손을 뗐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신규 브랜드 인수, 개발을 확대해 화장품 사업에 더욱 힘쓰는 계획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측은 "제조보다 브랜드 사업 등 잘하는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며 브랜드 사업 강화를 예고했다.

이같은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메틱부문 대표이사는 "스위스 퍼펙션 인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뷰티 명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국내외 브랜드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달아오른 반려동물시장 유통가 '너도나도 출사표'

코로나19 영향 '펫콕족' 급증
이마트, 간식·용품 할인행사
GS25 '어바웃펫' 상표 출원

국내 펫케어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펫콕족'도 덩달아 늘면서 유통업체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전문점 '몰리스펫샵'에 이어 자체 할인점에서도 반려용품 구색을 강화하고 있고, GS리테일은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 몰리스펫샵은 현재 33개다. 이마트가 H&B '부츠'와 빼에로썬 등 사업이 부진한 전문점에 메스를 대고 있는 행보와 달리 2018년 첫선을 보인 몰리스펫샵은 30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할인점에서도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사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펫콕족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는 7월부터 연말까지 매일 1~10일을 '몰리스위크'로 정해 사료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11~20일은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 간식과 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10월 전용 멤버십 '뽕냥이클럽'을 론칭한 이마트는 최근 펫 매장 내 반려동물 사료 구색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기존 몰리스펫샵에서만 판매했던 오가닉 사료, 프리미엄 사료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내추럴발란스', '지위픽' 등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를 들여와 20여 개였던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를 35개로 확대했다.

편의점도 반려동물 용품 판매에 힘 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대해상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선보인 GS25는 이달 초 특허청에 '어바웃펫'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지난 2018년 SBS 프로그램 'TV동물농장'과 협력해 만든 자체 브랜드(PB) '유어스 TV동물농장'에 이은 새로운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로 보인다.

2018년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하울'을 론칭해 전국 3000여 개 점포에서 'CU 펫하우스' 코너를 운영 중인 CU는 최근 반려동물 장난감 '애견토이 마카롱'을 출시한데 이어 점포 내 택배기사를 통해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펫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반려동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급격한 시장 성장세에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9440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2조580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련 용품의 매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CU의 3-6월 애완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해 위생용품(21.7%), 즉석식품(17.2%), 식재료(16.7%)보다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평소 구매 빈도가 높지 않던 반려동물 관련 상품 판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크로와시아 와플이야?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크로플하우스 팝업 매장에서 모델들이 '크로플'을 소개하고 있다. 크로플은 모스크바도 원당, 프랑산 최고급 밀가루, 퓨어버터, 동물복지란 등 최고급 원료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뉴스시

KT&G, 중동 수출 확대... 2분기 호실적

매출 1조2849억 2.1% 증가 전망

KT&G가 중동 수출 물량 확대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코스피 주요 상장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KT&G는 2월 중동 지역에 2조 원 규모의 담배 수출길을 확보한 후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수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중동 지역 담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담배 수출 비중

이 가장 높은 KT&G의 물량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 KT&G의 2분기 중동 수출 증가율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G의 수출은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90% 이상 외형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KT&G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3월 말부터 수출이 재개돼 2분기 내에 전년도 수출량의 100%가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G는 지난해까지 현지 정세 불안, 환율 급등으로 중동 지역 수출이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현지 수입업체인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 2027년까지 2조2000억 원 규모의 장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KT&G의 중동 수출 회복이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KT&G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2849억 원, 4004억 원으로 2.1%,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신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KT&G의 중동 수출 지속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해외법인은 외형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전자담배 '릴(lil)'의 수출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실적개선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복날엔 '숙성 민어회'



롯데마트가 16일부터 일주일간 자연산 민어를 활용한 '숙성 민어회(120g)'를 1만6800원에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 여름철 자연산 민어의 경우 가격이 kg당 7만~8만 원까지 올라간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 소비가 줄면서 제주도 모슬포항 산지 가격 기준으로 kg당 3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민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숙성 민어회'는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자연산 민어를 이케지메(신경을 순식간에 끊어서 즉사시키는 기술)로 처리해 선어의 신선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쿠팡, 오픈마켓 상품도 로켓배송

상품보관·CS 등 판매자 재량에 맡기는 '로켓제휴' 론칭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상품보관부터 로켓배송, CS 응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로켓제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로켓제휴'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온-디맨드(On-demand) 모델로, '로켓'의 셀링 파워를 활용해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돕는 새로운 판매 프로그램이다.

쿠팡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재고를 예측해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판매자가 쿠팡의 로켓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시키고 쿠팡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쿠팡은 상품 보관부터 로켓배송, 강력한 CS 응대까지 쿠팡 로켓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켓제휴는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운영하는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보다 유연하게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로켓제휴를 통해 판매할 경우 가격은 물론 할인 및 프로모션 진행 여부까지 모두 판매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자는 오롯이 상품전략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로켓제휴를 이용하는 판매자



들은 상품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직접 관리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송 방식인 로켓배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로켓제휴 상품은 상품 검색 화면에 '로켓제휴'가 명시된 배치가 별도로 부여되고, '로켓배송만 모아보기' 필터도 적용돼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쿠팡에 입점하는 판매자는 필요에 따라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배송, 그리고 로켓제휴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판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 종목도 코로나 수혜? 곳곳서 ‘어닝 서프라이즈’

한샘, 2분기 영업이익 172% ‘경증’
해성디에스도 전년비 150% 올라
증권가 예상외 ‘호실적’ 주목받아
“종목 장세 가능성 선별 투자해야”

상장사 2분기 실적 추정치

※전년 동기 대비

종목명	영업이익	증감률(%)
씨젠	1642억 원	3436.7
셀트리온헬스케어	667억 원	620.4
농심	339억 원	314.0
하이트진로	409억 원	285.9
원익QnC	140억 원	229.7
키움증권	1857억 원	184.4
한샘	230억 원	172.3
SK하이닉스	1조7197억 원	169.7
해성디에스	147억 원	150.4

※출처: 애프엔가이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한 실적이 쏟아질 것이라 전망과 다르게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며 선별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14일 애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25조55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실적 둔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 외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육석 가리기’ 장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한샘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2.3% 증가한 230억 원을 기록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사 추정치(175억 원)를 31% 웃돈 수치다. 해성디에스도 지난해보다 150.4% 오른 14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삼성전자도 22.8% 증가한 8조1000억 원, 테크윙(26.1%), 한진(24.5%) 등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치 대비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괴리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추정치와 실물 시장이 괴리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지표 발표와 비슷하게 2분기 실적도 추정치 대비 서프라이즈인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언택트와 바이오

종목들 다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가 개발한 진단키트 수출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선 씨젠(3436.7%)과 셀트리온헬스케어(620.4%), 셀트리온(80.4%), 파마리서치프로덕트(48.3%)를 비롯해 원익QnC(229.7%), 테스(228.1%), SK하이닉스(169.7%) 등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료품, 부동산 등 부진이 예상됐던 업종 중 반사이익을 본 예상 외 종목도 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수수료 부문에서 큰 수익을 본 키움증권 영업이익은 184.4% 늘어난 18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외활동 자제와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한 인테리어와 가구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리바트(117.1%), 지누스

(30.6%)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이외에도 △농심 △하이트진로 △LG화학 △컴투스 △오리온 △실리콘웍스 △에코마케팅 △덕산네오룩스 △삼성SDI △컴투스 △텐티움 등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승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반응은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 발표일 주가가 하락한 반면 한샘과 테크윙은 주가가 상승했다”며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 결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선반영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호텔롯데 ‘외부조달+리스부채’ 차입금 급증

공모채 등 올들어 1兆 넘었지만
CP 상환 목적 3000억 CP 추진
“코로나에 차입 부담 지속될 듯”

호텔롯데 차입금의존도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9.2	32.88	40.1	44.48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호텔롯데의 차입금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적극적인 외부 조달에 따른 것인데, 특히 지난해부터 바뀐 회계기준 영향으로 리스부채까지 반영되면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달을 준비 중이다. 조달 목적은 이미 발행했던 단기 CP들의 상환이다. 호텔롯데는 앞서 지난 2월과 5월 각각 4000억 원과 3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도 발행한 바 있다. 이 외에 사모채와 이번 CP 발행까지 더하면 올해에만 1조 원을 웃도는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회사는 과거에도 상환 및 투자 목적 자금을 차입금과 사채 등 외부조달을 통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24.94%였던 의존도는 지난해 40.1%까지 상승했고, 올 1분기 현재 44.48%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의존도의 상승 폭이 부쩍 커졌다. 부채비율 역시 2018년 106.47%에서 지난해

130.86%로 올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과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리스부채가 인식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재무제표상 상승하게 된 것”이라며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상승은 회사의 실질적인 채무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전체 차입금에서 리스부채를 제외한 차입금의존도를 계산하면 31.76%로, 전년(32.88%)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증가 추이는 외부조달에 의존한 영향이라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주된 평가다.

한국기업평가는 “국내외 사업 확장 및 계열지분 인수 등 대규모 투자의 상당 부분을 외부조달에 의존하면서 연결기준 순차입금이 증가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적 악화로 전년 말 대비 약 7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적 개선이 주요 과제로 남은 상태다. 호텔롯데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연결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이

3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66% 급증하고, 이에 순손실 역시 211억 원으로 96.09% 개선되며 희망을 보였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실적 위기에 처하면서 차입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회사의 영업손실은 792억 원, 당기순손실은 1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적자 전환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4890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차입부담 확대가 예상되며 기업공개에 추가 지연으로 높은 수준의 재무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부동산과 지분 등 보유 자산가치에 기반한 재무용통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지난 2016년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회사는 재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호텔롯데는 호텔과 면세점을 비롯해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1분기 현재 일본롯데호텔딩스가 지분 19.07%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으며 일본 광운사는 5.45%를 보유 중이다.

고대명 기자 kodae0@

채권전문가 99% “7월 기준금리 동결”

채권 전문가들이 7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채권시장 심리는 지난해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협회 발표된 ‘2020년 8월 채권시장 지표’ 발표에 따르면 채권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BMSI가 98.3(전월 104.4)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조사자 54개 기관, 100여명에 조사한 결과다.

기준금리 BMSI도 101.0(직전 121.0)를 기록해 전월 대비 악화됐다. 설문응답자 99.0%(직전 79.0%)는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0%(직전 21.0%)는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8

월 채권시장 심리는 소폭 악화했다”며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7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전망 BMSI는 100.0(전월 111.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됐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 증가가 채권시장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물가 BMSI는 73.0(전월 109.0)로 떨어졌고 △환율 BMSI는 88.0(전월 80.0)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환율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금 1g에 7만 원... 역대 최고치 경신

금 가격이 14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14% 오른 7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증가 기준 최고가로 전날 기

록한 역대 최고치 6만9900원을 하루 만에 넘어선 수치다.

장중 최고가는 7만60원으로 지난 5월 18일 기록한 종전 장중 최고가 7만 원을 경신했다. 앞서 13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12.20달러) 오른 1814.10달러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외형 성장 못 따라가는 내실... 이자보상배율 턱걸이

상장사 재무 분석

대동기어

코스피 상장사 대동기어가 외형이 성장하는 속도를 내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흑자를 내고 있지만, 수익성이 저조한 탓에 이자보상배율도 간신히 1배를 넘기는 수준이다.

대동기어는 1973년 설립된 대동공업 계열사로 자동차 및 농기계, 산업기계 등의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및 트랜스미션을 주로 제조한다.

주요 매출처는 대동공업과 한국GM, 현대기아차, 현대중합상사, 두산모트를 등이 있다. 작년 매출액은 농기계 부문 43%, 자동차 부문 44%, 산업기계부문 13%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매출기반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수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대동기어 별도기준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 ※2020년은 1분기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	1135	1320	1431	411
영업이익	30	30	32	6
순차입금	589	577	656	648
부채비율	204.1	193.1	218.7	236.1

평가받는다.

대동기어는 주 납품처인 대동공업의 수출 확대와 현대기아차 매출 규모 확대로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뤘다. 2016년 별도기준 매출 929억 원에서 지난해 1431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성장세가 이어져 1분기에 작년보다 9.6% 늘어난 4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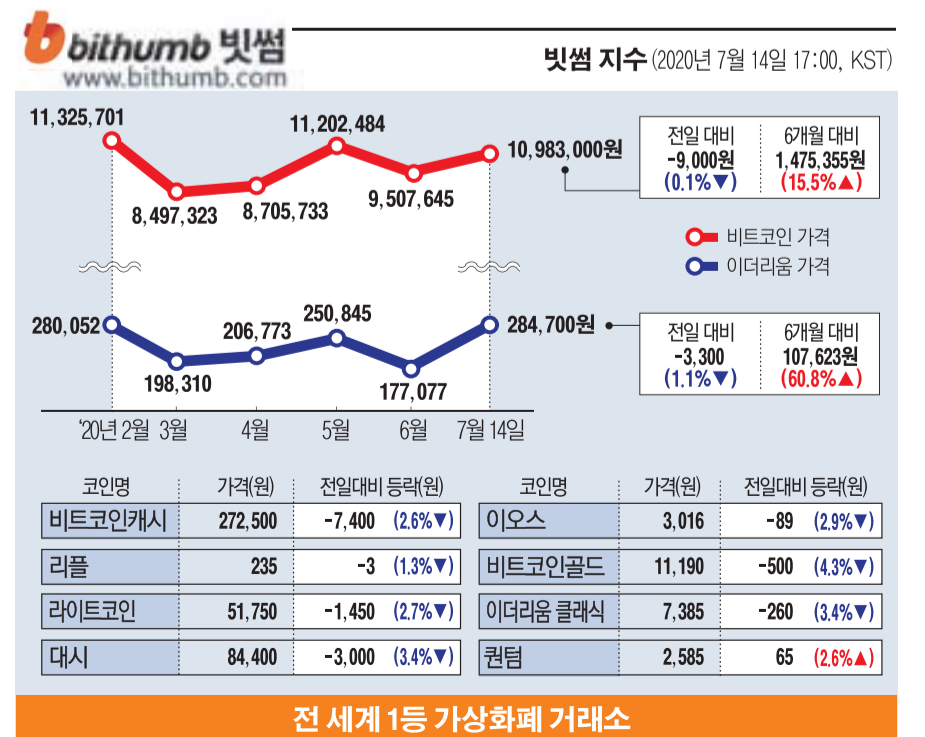
다만 회사의 내실은 저조한 편이다. 흑자는 나오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다. 대동기어는 최근 3년간 3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로는 2.2~2.6% 수준이다. 이에 이자보상배율도 1배

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회사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은 1.2~1.4배에 그친다.

한국신용평가 김현명 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도 농기계 부문 및 자동차 부문의 실적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거래처에 대한 열위한 협상력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2% 내외의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동기어는 생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투자가 지속해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동기어는 2013년 이후 평균 90억 원 내외의 자본적 지출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는 공장 신설도 진행했다. 이에 회사의 순차입금은 2015년 505억 원에서 지난해 656억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회사의 부채비율 역시 2015년 160.5%에서 지난해 218.7%, 올해 1분기 236.1%로 올라가 재무부담이 확대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2주택 세율 8%·3주택 이상 12%로 1주택자 입주시 500만원→4000만원 적용시점·경과조치 명시 안해 ‘불안’ 정부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노력”

“7·10 대책으로 취득세까지 걱정하게 됐네요. 현재 한 채 갖고 있는 집 외에 이미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은 2023년 9월 이후 등기(입주)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취득세는 1.1%인가요, 8%인가요?”

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이들 키가 커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의 넓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어렵게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K씨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투기로 모는 듯한 정부 대책에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높아질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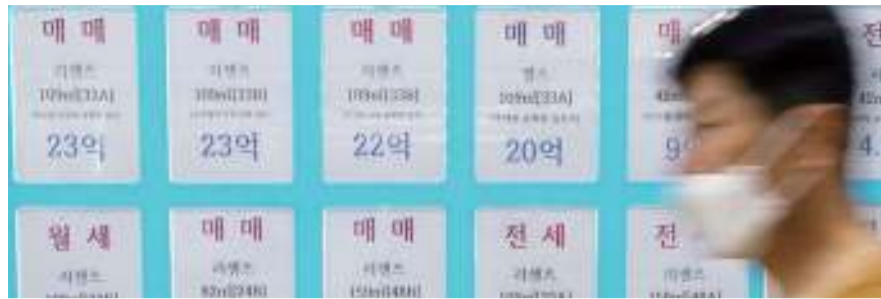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증가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

취득세율 인상(안)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현재		개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1주택
	2주택		2주택
	3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주택 이상
4%		12%	
법인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갑작스런 취득세 인상에 주택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특히 분양권 보유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취득세율의 적용 시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 되는데, 갑작스런 대책 발표로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분양 산출 단지는 계약 후 잔금 완납까지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 적용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중부세·양도세·취득세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상가 내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 연립뉴스

예컨대 1주택 소유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취득세 인상 이후에는 4000만 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취득세 인상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대책 발표 때마다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경과조치를 함께 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 때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정부가 4주택 취득세를 4.7%로 올릴 때 적용했던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4주택 취득세율을 4%로 올릴 때도 분양권의 경우 2년 뒤까지 취득하는 기간을 둔 바 있다. 매매 시에는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실수요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 적용에까지 나선 경우도 다수였으며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내년에 분양권 잔금을 치릴 예정이었다는 직장인이 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그는 “내년 분양권 잔금을 치른 뒤 주택을 매매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으로 자금 계획도 세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새로 계획을 짜야 할 판단”이라며 “분위기는 2년 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COVER STORY 산·들·바람 따라 사색여행

PART1. 등산보다 여유 있게, 신적보다 자유롭게

PART2. 대자연 속 '동행' 힐링리야와 알프스를 걷다

PART3. 조금만 가려 두면, 조금 더 깊어도 좋다

PART4. 다 함께 즐기기 위한 한 바퀴

PART5. 관악산 자락 걸으며 한강진 빈나절 산책록

PART6. 발길 따라 마음 따라 고르는 취향저작 드라마

PART7. "이름 만큼 즐겁다"



말곡진 인연으로 재인생에서 혼란을 차다
영원한 야구인 김성한



'바티고 야미다' 마침내 우리 못 문화를 꽃피우다
생활한복의 대표 브랜드 돌싱나이 김성희 대표



사대를 읽는 유행가, 새대를 잇는 트로트
추현미

더불어 숲
나무는 영원하고
상록은 덧없다

고수열전 화나면? 물 마신다, 그러곤 끝!
뚝으로 넘기자 심쾌한 뜻밖이 허세 고인다. 친구만 처리고 굳이 내세우지 않으나, 고재윤의 표정은 온근히 특약암암하다. 고재윤 교수는 보이처에 풍영 빠져 산다. 요번 세상은 그저 보이처를 담그는 데에 시간을 쓰기로 했다? 진정한 보이처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믿, 그는 줄기치며 명차 원산지들 찾아 중국 오지를 순례했다.

김혜영의 느린 여행
산만 가짐·소외도 '순례자의 길'

전남은 침부자다. 우리나라 3300여 개 섬 중 2165개가 전남에 있다. 그중에서도 산만군에 100개가 모여 있다. 산만군을 천사 섬이라 부르는 이유는, 2019년 10월 산만군 기정·소악도에 예수의 12사도 이복을 탄 작은 예배당 열두 개가 지어졌다. 아무 볼 것 없던 섬에 천사의 온음이 내린 듯했다.

시니어 밥상
휴머이드 사찰음식+건강한 여름 다이어트를 위한 아연도 레시피

두지 고수와 놀자
박상욱, 신현우형 WM추진부 사무국장 퇴직 후 노후 대비 절제가 답이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변 호재 덕에 '최대 수혜'

봄이면 마을이 꽃향기로 가득해서 젊은 지명 '행동(香洞), 서울 근교의 순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향동지구가 최근 데밸역세권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개발이 한창이지만, 그만큼 지역가치 상승 잠재력도 풍부한 향동지구를 직접 찾아가자.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정부 “3.6만 가구” vs 민간 “2.5만 가구”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 ‘괴리’

김현미 “연 4만 가구 공급…충분”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또다시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다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부정하면서도,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선 면밀한 파악도 없이 대폭 늘려 잡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6000가구에 달한다고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밝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민간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업계에 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5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가구다. 정부와 민간 업체가 각각 파악한 입주 물량이 무려 1만1000가구나 차이나

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물량과 일반분양 계획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등은 민간업체 집계 물량에서 제외돼 실제 입주량 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에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만 무려 1만 가구가 넘는다는 얘기다.

이에 국토부에서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 중 후분양 단지와 공공임대단지의 구체적인 입주 물량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측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은 없고, 2023년에 1300가구 정도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구공식 주택 통계 행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주택 분양경기 전망 한달 만에 ‘뚝’

7월 HSSI 전망치 69.1...10.5P↓
지난달 실적치는 80.7로 전월과 비슷

분양경기 실시지수가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수요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면서 주택 공급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분양경기 실시지수(HS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10.5포인트(P) 하락한 69.1을 기록했다. HSSI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100을 기준으로 분양경기 전

망 판단한다. 분양경기 전망치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79.2로 전월 대비 30.3P 내렸다. 광주만 80을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은 50~70선의 전망치를 보였다. 인천은 지난달보다 15.5P 하락한 75.6, 경기는 전월 대비 12P 내린 78.9로 집계됐다.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양사업 여건 인식 악화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HSSI 실적치는 80.7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분양 실적이 전월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지방광역시들은 대부분 실적치가 하락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무자본 인수 후 횡령... 잘나가던 회사 상폐위기 지투하이소닉 前경영진 실행 확정

허위공시로 투자자에 돈 받아
대법 “자본질서 심각하게 훼손”

자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자금을 유용해 상장폐지 위기로 몰고 간 전 경영진이 실행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지난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 곽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씨 등은 2018년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사채자금 등을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자회사를 매각해 사채자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외형적으로는 인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꾸미고 7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가 성공한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CB) 인수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2차 협력사였던 지투하이소닉은 곽 씨 등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한순간에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이들이 회사 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사채 수수료, 이자 등으로 지출해 지투하이소닉은 2018년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자본잠식률 87% 등 부실화로 지난해 초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1심은 “최대주주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사장·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불과 3개월 사이에 96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해외에 거액의 자산을 보유해 상장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나머지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주범”이라며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금을 회전시켜 경영권 인수계약대금이 지급된 외관을 완성하고 실제로는 대금 수령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 배임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각자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자금담당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자회사 지분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92억 원에 관해 회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자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자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선 이 씨는 “폭언과 폭행 인정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김종용 기자 deep@

시민단체, 경찰·靑·서울시 간부 고발 檢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수사하나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한국단도 이날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

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서 이날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종용 기자 deep@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성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우와 맞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우이자, 후속한 성장형기업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항가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얻는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멍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명호 저 | 232쪽 | 4800원 | 215.800원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 / 214,800원

하나금융그룹

하나 나오기만 기다렸다 하나에서 나오기만 기다렸다

개인형 IRP x 확정금리 연 2.2% 적립형



IRP 가입하기

갖고 싶은, 갈아타고 싶은 개인형 IRP 적립형 상품 출시

[개인형 IRP 운용상품 : 하나생명 이율보증형 보험(자유적립식)]

- 제공 대상 : 개인형 IRP 가입자 · 금리 및 기간 : 연 2.2% 확정금리, 1년 · 판매한도 : 한도 소진시 판매 종료
- 만기도래시 동일 과목으로 자동 재예치 · 유의사항 : 자기부담금만 입금 가능 (연 최대 1,800만원)
- 신규는 비대면 채널, 계좌이전은 하나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IRP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 2020년 6월 26일 기준 제공금리이며,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금리는 매월 1회(1일)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홈페이지(http://pension.kebhana.com)에 고시됩니다.
 ※ 퇴직연금 건독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관리금보장상품(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비중시인 심사필 2020-광고-253호(2020.06.29 - 2020.07.31) ※ CC비렌드200626-0216
 ※ 모바일 개인형IRP 업무이용시간 : 개인형IRP 신규 · 보유자산변경 · 매수·예정상품등록 · 각종조회는 [24시간 365일], 단 입금은 [영업일 09:00~18:00] 사이만 가능 ※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 1599-2080 [영업일 09:00~18:00]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 만들어 ‘당신의 발걸음’ 응원”

프로스펙스 맞춤형운동화 프로젝트 이끄는 공세진 R&D센터장

양쪽 발 크기 다른 어린이·질환으로 발이 계속 성장하는 이... 300명 사연 받아 50명 선정...일회성 아닌 시즌 형태 진행 계획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걷기’인데, 그 걸기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도구인 ‘신발’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발 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아 기성화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국내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나섰다. 프로스펙스는 지난 5월 기성화가 불편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 50명을 선정해 맞춤 운동화를 제작해주는 ‘잘됐으면 좋겠어 당신의 발걸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공세진(40) 프로스펙스 R&D 센터장은 “프로모션을 처음 제안하고 구체화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라며 “기성화 브랜드에서 개별 맞춤화를 제작하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발 모양이 전부 다 달라 발 모양을 어떻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측정 방법을 고민했고, 어떤 소재가 필요인지 등 발 모양에 맞는 소재와 기타 자재를 조정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 세진 R&D 센터장이 이 프로젝트를 푼 심 있게 끌고온 이유는 ‘걷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서 생체역학을 전공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동작 분석 연구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프로스펙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 세진 센터장은 “주변에 보면 신발이 불편해도 참고 신는 사람이 꽤 많더라. 이들에게 우리의 신발 만드는 기술로 실질적인 편안함을 주는 ‘하나뿐인 신발’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잘됐으면 좋겠어 당신의 발걸음” 프로젝트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연을 보냈다. 공 세진 센터장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발 모양을 보며 정말 도움이 손길 이 필요한 50명을 추렸다. 그 중에는 특정



공세진(오른쪽) 프로스펙스 R&D 센터장이 ‘잘됐으면 좋겠어 당신의 발걸음’ 프로모션 참가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프로스펙스

질환으로 발볼이 넓어져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다. 공 세진 센터장은 “후천적인 질환으로 발이 계속 성장해 덮개가 있는 신발을 신어본 적 없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 같은 평범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거

냐’며 설레어 하더라”고 전했다. 양쪽 발 크기가 달라 신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부모가 큰 발에 맞게 신발을 사주다 보니 항상 작은 발이 불편해 넘어지곤 했다. 그 아이를 위해 걸음으로 보기에 신발 크기는 같아 보이지만, 안에 장치를 넣어 발 크기에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제작 중이다. 아이는 계속 성장할 테니 정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스펙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일회성이 아닌, 시즌 형태로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공 세진 센터장은 앞으로 생체 주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발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그는 “신발이라는 재화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걷기 동작은 정말 쉬워진다. 사람은 자라면서 걷기 모양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노화할수록 퇴화되는 시기를 겪는다. 현재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신발에 적용해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생체 주기마다 보행 특성에 맞는 신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박미선 기자 only@

NH아문디운용, 시몽 부사장 취임

니콜라 시몽 전 인도 SBI자산운용 부대표가 NH아문디자산운용 부 사장으로 취임했다.



14일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신입 니콜라 시몽 부사장은 프랑스 툴루즈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툴루즈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9년 BNP 파리바 부동산에 입사한 이후, 크레디리오투그룹, 제네랄리 부동산, 핸드슨글로벌 인베스터스를 거쳤다.

아문디에는 2005년 입사해 파리에서 부동산 대표를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문디자산운용 인도지역을 총괄했다. SBI자산운용은 인도에서 가장 큰 행인 SBI와 아문디자산운용의 합작회사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야놀자, 엠태욱 신입 CTO 선임

야놀자가 신입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엠태욱 플랫폼유닛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엠태욱 신입 CTO는 197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네이버, 엔씨소프트, SK플래닛 등 국내 주요 테크 기업들을 거쳐 2017년 야놀자에 합류했다. 야놀자에서는 플랫폼품질, 플랫폼유닛장을 역임하며 야놀자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화하고, 일관성있게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엠 CTO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으로의 야놀자 및 관계 서비스들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백패커, 정보람 쿠팡 前 대표 영입

온라인 핸드메이드마켓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주)백패커가 정보람 쿠팡 전 대표이사를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로 영입했다.



14일 백패커에 따르면 정보람 COO는 글로벌 기업 머서, 엔씨소프트 등을 거쳐 ‘쿠팡’에서 핀테크 부문 각자대표를 역임하며 핀테크 사업을 주도했다. 6년간 쿠팡에 재직하며 자체 결제 서비스인 쿠팡페이로 구축하고 성장케 했다. 또, 로켓와우, 쿠팡이츠 등 신규 서비스의 런칭도 이끌었던 베테랑 기업인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부음

▲남명숙 씨 별세, 김도욱(일산에너지 상임이사) 씨 부친상 = 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5일 오후 1시 20분, 02-2227-7560

▲한병찬 씨 별세, 한정수(교보증권 구조화금융2부 이사) 씨 부친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후 3시, 02-2227-7500

▲양필규 씨 별세, 김병오(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장) 씨 모친상 = 13일, 창원정다운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15일, 055-244-4444

▲오예균 씨 별세, 최용주(삼진 제약 대표이사 사장) 씨 모친상 = 14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1층, 발인 16일, 042-220-9870

▲전순철(부산정보관광고 이사장) 씨 별세, 전동운(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봉운(삼성빌딩 대표)·혜경(연세 좋은치과 원장)·혜원(부산정보관광고 교사) 씨 부친상, 최진욱(법무법인 서울대대표변호사)·박성진(부산정보관광고 행정실장)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02-2227-7550

현대차, 장난감 업사이클링으로 ‘페플라스틱 감축’ 지원

공동모금회와 ‘그린무브공작소’ 설립...폐기물 수거 재활용

현대차그룹은 14일 경기도 안양시 현대차 안양사옥 4층에 마련된 사회적 협동조합 ‘그린무브공작소’ 개소식에 참석해 페플라스틱 장난감 순환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그린무브공작소는 플라스틱 장난감 폐기물을 수거하고 수리·소독·재활용해 장난감이 필요한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통해 재판

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약 800만 톤(t)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중 플라스틱 장난감 폐기물이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240만톤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EUROMAP)’ 조사에서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린무브공작소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등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페플라스틱 장난감을 수거·수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이재진 그린무브공작소 대표(왼쪽부터)가 14일 경기도 안양시 현대자동차 안양사옥 4층에 열린 사회적협동조합 ‘그린무브공작소’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리·소독 후 필요한 복지기관 등에 재기부하고, 나아가 페플라스틱 부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해 기부, 재판매

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직원들과 ‘도시락 토크’

이성희(사진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이 14일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 토크’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개선에 필요한 이야기를 비롯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따른 디지털 영농, 유통분야 언택트 소비 등에 대한 전략도 논의했다.

이성희 회장은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



임직원이 한 마음이 돼 혁신과 도전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다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우리은행, 소외계층 위한 ‘건강한 여름’ 공모사업

우리은행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한여름 무더위로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모사업 ‘WOORI(우리)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은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여 조성된 우리사랑기금을 재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우리은행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소외계층이 코로나19와 폭염을 예방하는 복지시설의 우수 프로그램에 총 1



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했고, 또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한 여름 나기 건강 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인사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인식 문창진 조영길 정경덕 <과장급 전보> △특허법제처장 직무대리관 신현철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창수 남석우 송원선 이경홍 최지명 허영한 김동원 김명배 이의희 양승태 오상진 정치우 차형렬 배재현 고준석 김성남 정선웅 김희진 문선흡 이우형 김대선 강원길 이경열 이수형 최승삼 김근희 김중화 인지복 제갈현 목승균 성백문 신용주 장현근 최진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 김형우 △선박연구원부장 김광수 △자율지능운송연구원부장 여동진 △해양플랜트연구원부장 김연규 △해양에너지연구원부장 최준수 △해양시스템연구원부장 이만복 △해양안전환경연구원부장 황태현 △경영기획본부장 황우연

◆KDB산업은행 <본부장> △충청지역본부 박형순 △호남 △홍권석 <부·실장> △기업금융3실 안창우 △심사2부 정성욱 △총무부 박한진 △홍보실 문용기 △소비자보호부 김영오 <지점장> △강남 정광일 △압구정 권오상 △잠원 박영집 △한티 김종록 △여의도 박현서 △종로 김선우 △부평 이석원 △인천 강태욱 △수원 정한목 △화성 김경준 △서부산 황성민 △경산 이지덕 △대전 이경희 △대전 심기호 △여수 김한성 △상하이 정윤철 <혁신성장금융부> <팀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나재민 <중소중견금융부> <팀장> △경인지역본부 외국성 <충청지역본부> 최상운 △호남지역본부 이종현 △도곡 한상목 △반포 양준수 △서초 박인수 △잠실 박병수 △잠원 손중학 △하남 정우석 △가산 김인복 △노원 박경규 △양천 조해리 △여의도 김민창 △영양부 김복임 △종로 윤희진 △송도 전준표 △시화 서영

진 △인천 이상준, 이원숙 △수원 김현경 △원주 최정석 △화성 윤석진 △부산 윤정숙 △진주 전성민 △창원 전성우 △해운대 박정미 △대구 최항석 △성서 김은영 △울산 김재우 △대전 윤영삼 △천안 강선희 △청주 이광수 △충주 김윤기 △광주 임운옥 △여수 조두일 △전주 유승민 <기업금융부> <단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계환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허운 △기업금융1실 권태수 △기업금융3실 오병성 △기업금융4실 이정훈 <글로벌사업부> <팀장> △해외사업실 김동근 △무역금융실 문운정, 윤혜진 <해외주재원> △상하이 김상훈 △아시아지역본부 유창수 △뉴욕 백용조, 장기천 △토쿄 배재휘 △싱가폴 이인성 <지분시장부> <팀장> △발행시장실 우정훈, 전현수 △M&A컨설팅실 함지호, 박준홍, 신지훈 △PE실 김호경 <심사평가부> <팀장> △심사1부 이상우 △심사2부 김재식 △리스크관

리부 <팀장> △리스크관리부 강안호 △여신감리부 이주형 <정책기획부> <단장> △여신기획부 김태군 <팀장> △재무기획부 박정후 <경영관리부> <팀장> △총무부 남우준 △홍보실 이주희 △안전관리부 서명범 <벤처금융본부> <팀장> △넥스트리드실 강석주 <기간산업인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사무국 김성환, 이형진, 송선희 △기금운용국 조은남, 이용준, 제정용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김진원 △기업구조조정2실 이수복 △기업구조조정3실 양재호, 김형진, 김일오, 이준원 <PF본부> <단장> △PF1실 김대업 <팀장> △PF1실 박순홍 <IDT본부> <팀장> △금융전산부 김형진 △e-뱅킹전산부 공현순, 이상엽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백광균, 이정 <준법감시인> <팀장> △소비자보호부 김현진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최명욱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국민에게 도시 봉쇄를 요청할 때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관료가 작성한 메모를 그냥 읽었고 기자들의 질문을 빨리 중단했다. 자신의 생각을 성실하게 말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양식과 식견, 지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도 할 수 없게 된다.

찾은 스캔들과 코로나19 대책 실패로 지지율 저하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7년 반 이상 이끌어온 정권에 드디어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말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총리 관저에서도 아베 1강 체제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아베 1강 체제에 반기를 든 사람은 정권 실제 나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다. 간사장이란 실질적인 당대표이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이지만 총리이기 때문에 당무는 간사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간사장은 자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가 4월 7일 긴급사태를 선포했는데 그 후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가구에 한정해서 1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나카이 간사장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연계해서 국민 1인당 일괄적으로 10만엔 지급으로 총리 방침을 뒤집어 버렸다. 이 사건은 '나카이의 난'으로 불리는데 아베 총리가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동안 정권의 위기관리를 맡아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의 측근 관료들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패배

해 코로나19 대책의 중심적 역할에서 제외되면서 아베 총리와 멀어졌다. 그리고 아베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된 사건은 관저의 수호신으로 불린 구로키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지검장(당시)의 사퇴다. 그가 내기 마지막이 발각돼 사퇴하자 아베 총리는 검찰 내부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고 총리 관저의 구심력이 저하됐다. 아베 총리의 권력이 막강했을 때 구로키와 지검장이 이끄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장관실에서 업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특명장관의 청탁 의혹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로키와 검사장의 사임으로 아베 정권의 권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자 특수부는 총리 측근인 가와이가 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선거법 위반인 유권자 매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더해 여당 자민당에 충격을 준 것은 고노 다로(河野太朗) 방위상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여쇼어배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일이다. 이지스 여쇼어는 총액이 약 5000억 엔이 들 것으로 알려진 장비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기 매입 요구로 아베 총리가 매입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의 대미 공약

을 일개 장관에 불과한 고노가 자민당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중단했으니 아베 총리의 내각 장악 능력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을 지탱해 온 세기동 중 니카이 간사장, 스가 관방장관이 사실상 아베 총리에 등을 돌린 상태여서 아베 총리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맹우로 불린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아소 부총리는 6월 아베 총리와 세 번이나 단독으로 회동하면서 9월 해산, 10월 중의원 선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는 연립여당 공명당 간사장과 회담에서도 가을 해산을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제2파'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생각은 오로지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밖에 없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회 조기 해산과 총선에 반대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아소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과 동시에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올해 11월이 되면 아베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도쿄 올림픽

이 취소되면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의 논리는 총선을 치른다면 10월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도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 이제 코로나 전과 같은 사회나 경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일본에도 없다. 재택근무 등 사회가 바뀌어 가려고 할 때 도쿄에 올림픽을 유치해 대규모 경기장 등 철근 상자를 만들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는 아베 총리의 발상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같은 발상이자 20세기적 가치관이므로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국민에게 도시 봉쇄를 요청할 때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관료가 작성한 메모를 그냥 읽었고 기자들의 질문을 빨리 중단했다. 자신의 생각을 성실하게 말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양식과 식견, 지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도 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총리 다음 총리는 국민이 위기 때 의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일본의 여권에 그런 총리 후보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고



엄상웅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행사 취소, 형평에 어긋난다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쑥 대밭으로 만들었다.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이벤트산업(행사대행업)이 완전 멸종 위기다.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있으니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금 덕분에 6개월이라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젠 거의 코앞이다. 아마도 7월, 8월이 넘으면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다 버티 회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갈 것이다. 이미 없어진 곳도 한둘이 아니지만. 집합시설은 허가, 금지가 업종에 따라 뒤바뀌지만 그래도 대부분 영업은 한다. 립살롱도 영업 중이다. 립살롱이라는 곳이 거리두기를 하며 1~2미터 떨어져서 술을 먹는 곳은 아니다. 흥이라도 나면 노래도 부른다. 역시 거리두기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곳은 없을 것이다.

대학이나 음식점이 준비한 곳을 가보면 더욱 변성함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가는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좌석도 다다다닥 붙어 있고, 신나는 대화를 하며 즐기는 분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면 어쩔 수 없다. 야외행사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한다. 교회, 콜센터, 클럽, 배회회사 등 지금까지 집단 감염지는 전부 실내다. 당연히 실내보다는 실외가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실외에서도 집단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에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 행사대행업은 그야말로 멸종위기다. 매출액이 '0'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너도나도 취소, 취소를 외친다. 심지어는 국내재난기금이 모자라다 보니 일부러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전용을 하는 곳이

많다. 제주도는 아예 내놓고 전부 취소를 한다고 발표했다. 행사대행업에 종사하거나 관계되는 사람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형평성과 보편성을 중시해야 한다. 한쪽만 내놓고 위한다면 그 누구라도 쉬운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없다.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균등하게 국가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 어려운 국난에 집단 이기주의처럼 비칠 수 있겠지만 행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이 땅의 국민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행하든' 곳도 생겨난다. 국민의 문화생활도 우선이지만, 무엇보다 종사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지역축제나 행사가 그저 향락적인 산업이라고 매도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입

증되었다. 철저한 방역, 마스크 필수, 음주나 취식 제한, 거리두기, 온라인 판매, 드라이브 스루, 넓직한 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 일부 행사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한다. 국가적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무조건적인 국가재난기금 전용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권을 뺏아 가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행사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부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당 산업 종사자와 개최 장소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권도 일부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행사대행업 종사자들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대행업 종사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램브란트 명언
"미술작품은 작가가 끝났다고 말할 때 끝난 것이다."
네덜란드 화가. 대표작 '야간순찰'을 주문한 사람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자 그가 한 말. 그는 아내와 사별 후 하녀와 재혼했으나 후처와도 사별하고, 만년에는 세인과외의 접촉 없이 살았다. '근대적 명암의 조(祖)'란 이름을 얻은 그는 유화·수채화·동판화·대성 등 2000여 작품을 남겼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06-1669.
☆ 고사성어 / 반부논어(半部論語)
반 권의 논어라는 말. 자신의 지식을 겸손하게 이르기나 학습의 중요함을 비유한다. 송(宋)나라 송상 조보(趙普)는 전쟁터에 나가느라 글공부 할 틈이 없어, 퇴청하면 두문불출하고 글을 읽어 풍부한 학식을 갖추었다. 사람들이 "그는 겨우 '논어'밖에 읽지 못해 중책을 맡기기 어렵다"고 해 태종이 조보를 불러 묻자 한 그의 대답에서 유래했다. "신이 평생에 아는 바는 진실로 '논어'를 넘지 못합니다. 그 반 권의 지식으로 태조께서 천하를 평정하시는 것을 보필하였고, 지금은 그 나머지 반으로 써 폐하께서 태평성대를 이룩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臣平生所知誠不出此書以其半輔太祖定天下今欲以其半輔陛下治太平]." 조보가 죽은 뒤 유품을 정리해 보니 정말 '논어'밖에 없었다고 한다. 출전 학림옥로(鶴林玉露).

그의 병명은 '시대암'.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1990년 43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음 앞에 붙여진 고허(高虛)한 병명이다. 올해 서거 30주기가 된 조 변호사의 영정 앞에 민주화 시대를 추동한 무게는 짐이 느껴진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조 변호사의 후배 인권 변호사였다. 박 전 시장은 조영래 변호사의 대표적 사건 '부천 성고문 사건'의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박 전 시장은 조 변호사를 회고하며 "때 이른 죽음을 아쉬워하던 모든 분이 내린 조 변호사의 병명이 '시대암'이었던 것에 동의한다"며 "조 변호사의 깊은 인류애에 대한 여전한 그리움을 전한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지금도 혼자

목상을 할 때면 스승이자 선배인 조영래 변호사를 떠올린다"고 했다. 그는 "부천 성고문 사건과 여성 조기정년 철폐 사건 등을 맡으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조 변호사를 통해 열정과 포용력을 배웠다"며 "지금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부딪힐 때마다 '조

영래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장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로이터통신은 박 전 서울시장 관련 비보에 '성학대 혐

의 한국 수도 서울시장 장례식'이라고 간결하게 이름 붙였다. 수사도 필요 없다. 누군가는 뼈저리게도 수치스러워야 할 마지막 타이틀이다. '모두 안녕'이란 너무나도 짧은 말 뒤에 숨어 피해 호소인에 대한 일인연구 없이 세상을 스스로 등진 그는 선배 조영래와 만날 테다. 망인이 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한들, 그의 혐의는 씻길 수 없다. 당신은 무슨 날으로 그를 보려고 줏값을 받지 않고 모두를 등졌다. 땀땀지 못한 4년의 성추행 의혹만을 남기고 그는 허망하게 죽음을 쫓았다. 선배 조 변호사는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명언을 거어코 박원순 전 시장에게 건넬 것이다.

☆ 시사상식/라이프 로깅(Life logging)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웹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서비스. 싸이월드를 비롯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받는 트위터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기자수첩



이꽃들 정치경제부/flowerslee@

선배 조영래와 만나, 당신은...

영래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장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로이터통신은 박 전 서울시장 관련 비보에 '성학대 혐

의 한국 수도 서울시장 장례식'이라고 간결하게 이름 붙였다. 수사도 필요 없다. 누군가는 뼈저리게도 수치스러워야 할 마지막 타이틀이다. '모두 안녕'이란 너무나도 짧은 말 뒤에 숨어 피해 호소인에 대한 일인연구 없이 세상을 스스로 등진 그는 선배 조영래와 만날 테다. 망인이 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한들, 그의 혐의는 씻길 수 없다. 당신은 무슨 날으로 그를 보려고 줏값을 받지 않고 모두를 등졌다. 땀땀지 못한 4년의 성추행 의혹만을 남기고 그는 허망하게 죽음을 쫓았다. 선배 조 변호사는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명언을 거어코 박원순 전 시장에게 건넬 것이다.

누가 검찰을 흔드나

“흔드는 것이 어딴니까.”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동안 졸곤 앉아 있던 그는 입을 열어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흔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보인 제스처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며 “외부에서 흔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릴 때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한다. 옷을 보는 게 아니다”고 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7년 전 외압 폭로와 함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긴 그는 검찰 총장이 된 이후에도 ‘마이웨이’를 걸었다. 그의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시절 수사 기조도 이어졌다. 더욱 단단해진 검사동일체는 ‘윤석열 검찰’의 동력이 됐다.

균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 때부터 시작했다. 이전의 나비효과를 꼽으려면 윤 총장 취임 직후 이뤄진 7월 인사였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사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모든 오직에 앉았다. 당시 대검찰청 부장검사(검사장)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사석에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각별한 검사장들도 있었다. 특수부 출신들의 약진은 다수인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소외감을 자극했다.

윤석열 사단은 조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와 여권 인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망을 펼쳤다.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의 흑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쯤 되니 여권에선 “가만둘 수 없다” “정치 검찰 응징하자”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윤 총장을 향해 “몰러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의 공격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대판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의혹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벌어지자 여당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전했

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선봉에 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지휘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수사의 지휘권을 갖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이를 박탈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라는 뜻으로 읽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1주일 만에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수사지휘에 따르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정승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고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즉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지휘권은 사라졌다는 의미다.

윤 총장의 결정은 검찰 내부를 요동치게 하였다. 수사지휘권 수용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과 수사의 독립성 유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장교 끝에 악수라는 실망감이 교차했다.

권력에 검찰은 탐스러운 열매다. 어떤 정권도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언제나 외풍에 시달렸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현명하게 막아내는지, 독립성에 대한 내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보였을 뿐이다. 검찰총장은 큰 바람을 막고 비껴가기도 할 넓고 유연한 우산을 펼칠 필요가 있다. 자기당착에 빠져 검찰 스스로도 외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js62@

구성현의 작자지결



자본시장1부 차장

세계 개편으로 증시 찬물 끼얹은 정부

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에서는 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영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모든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자자들이 올린 비판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는 세계 증시 중 이머징 증시 국가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머징 증시 국가 중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크게 올려 현금 부자들이 유입돼야 한다”며 “국내 증시가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대만이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만의 경우 1988년 세계개편 발표 후 19일 만에 지수가 8798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2% 급락했고 거래대금도 크게 줄어 세수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에서도 세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거래세 폐지 내용을 담은 금융세계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기 국회 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안이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우리 증시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목격할 바 있다. 이를 통해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주가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우량 기업에 투자해 실적을 공유하며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에서 있다.

하지만 정부가 눈앞의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장기 저금리 기조로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건전한 투자를 통해 건설한 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기로에서 ‘기술어린 운동장’을 더 기술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carlove@

시설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산업개혁 제대로 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처음 제시됐고, 3개월의 작업을 거쳐 나온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청사진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여당, 민간기업, 민주노총을 뺀 노동계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력 결집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중립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非對面)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중점 추진에,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2022년까지 정부예산 49조 원을 비롯한 67조7000억 원을 투입해 88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025년까지는 국비 114조1000억 원을 포함한 160조 원 을 들여 190만1000개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민간 역할의 강조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원격방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비대면 산업의 미래를 각각 제시한 것이 상징한다.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야심차고, 우리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미래이자 한국 경제의 활로임에 틀림없다. 관건은 이 원대한 그림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뒷받침이다. 정부는 제도기반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하고 민간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투자는 마중물이고,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신산업을 일으키는 펌프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과 재정 역할의 한계는 분명하다. 장기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은 혁신과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다. 산업구조 개혁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의 혁파가 전제조건이다. 수도 없이 강조된 애기인데, 이번 한국판 뉴딜 구상에서도 그런 다급한 현안에 대한 혁신 의지와 구체적 비전이 결여돼 있다.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무, 특! 수시로 바뀌는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부는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또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그럼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2대책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2018년 8월 3일 이후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뒤에 팔더라도 일단 생긴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2018년 9·13대책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이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집을 샀을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팔아야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19년 12·16대책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또 그곳에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2년이 아닌 1년 안에 팔아

야한다. 또한, 새로 구입한 주택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입과 처분 시기가 연장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 주택의 양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보유했다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없고 최고 30%의 일반공제율만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연간 8%를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좌우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장윤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KB 차차차



GLOBAL ONE MARKET



‘매물대수1위, 중고차 거래 플랫폼’
편리성과 안심거래로
중고차 거래를 신뢰로 바꾸다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
혁신적인 통신 혜택으로
생활을 바꾸다

‘해외주식 원화거래 서비스’
해외주식 거래도
국내주식처럼 쉽게 바꾸다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KB 통합 포인트 플랫폼’
포인트 적립부터 결제까지
소비생활을 현명하게 바꾸다

‘내 일상에 꼭 필요한 암보험’
당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도록
보험의 상식을 바꾸다

누리보세요! KB가 만들어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63호(2020.05.14)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KB차차차] 2020년 4월 글로벌리서치 <중고차거래플랫폼 리서치> 기준 [리브메이트]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0512-01466-ADP호(2020.5.12 기준) [글로벌원마켓]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2239호(2020년5월13일)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가능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 국가 :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10/15/20/30년 갱신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00세입니다(담보별 상이). 또한,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 최초(갱신 전) 계약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사항 및 지급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필 제 30632호(2020.05.18)

취득세율 인상(안)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주택 이상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